

공간(空間)과 천지(天地)

- 동서양 건축에서의 공간관 -

김 성 우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주제어: 공간, 천지, 동양, 서양, 공간관, 건축, 건축론

1. 서론

우리는 공간이라는 말을 자주 쓰면서 그 개념적 정당성에 대하여 전혀 의심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된 공간이라는 개념에 따라 실계를 한다. 이 논고는 그렇게 당연한 개념으로서의 공간이란 것에 대하여 문화적 또는 세계관적 분석을 시도하고 그 성격과 타당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려 한다. 기본적으로 공간이란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어서 좋은 보편개념이 아니고 서구문화의 독특한 발상법에 따른 사고습관의 결과라는 논리를 전개한다. 그것은 문화적 특수개념이지 범 문화적 보편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보편개념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20세기를 거치며 서구화되어야 했던 역사적 상황의 결과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진단을 시도하는 이유는 서구적 공간관을 그 개념적 구조에서 밝혀놓고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 동시에 우리의 또 하나의 목표는 동양적 공간관이라고 불러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또 어떠한 것이었을까 하는 물음에 대답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았을 때 서양의 공간관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려는 시도는 사실상 동양의 공간관을 비교적으로 확인되게 하는 하나의 방편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도를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물음은 거의 대답의 필요가 없는 질문이 아닐까 싶다. 우리가 앞으로의 우리 자신의 문화를

서양문화에 예속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시도는 필요 없다. 한국건축의 미래가 서구적 사유모델의 틀 속에 갇혀있어서는 안 되며 새로운 이해의 틀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시도는 불가피하다. 사실상 우리는 공간이란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입되어 있는 서구적 이해방식을 벗어나서 생각하기를 도모하고 있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생각의 준거를 동양적 세계관에 두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 건축의 바람직한 미래는 새로운 생각의 틀을 찾는 일에 달려있다는 견해에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공간관의 문제는 건축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의 하나이며 특히 근대건축의 등장과 함께 새롭게 부상된 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는 서양근대건축에서 제기된 공간론에 국한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공간이해의 문화적 경향은 서양건축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일관된 흐름의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동서양의 공간관의 문제를 역사적인 시각에서의 규명과 분석을 시도하기보다 역사진체를 일관되게 관통하는 경향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려 하고 문화론 또는 세계관적 조명을 방법으로 한다고 말하고 싶다. 다루려는 주제의 성격이 사료적 검증을 통하는 방법보다는 이론적 자기정당성 확보를 방법으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상 여기서 우리가 욕심내는 견해의 구축은 소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거치게 하는 것을 방법으로 해서 목적이 달성되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모든 인문학적 논증이 그러한 것과 다르지 않다. 여기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어차피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것이며 그 승부는 구축된 견해의 자기변론의 강도에 따라 판정되게 할 수 밖에 없다. 우리가 하려는 것은 하나의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다. 설득력의 강도를 높이려는 시도를 할 뿐이다. 제안된 견해와 다른 견해가 있다는 것이 이 논문의 정당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다. 숨어있는 설득력의 강도가 충분히 강하다면 구축된 견해는 스스로 자기 정당성을 확보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문화적 현실이 이렇게 구축되는 견해를 절실하게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동양인으로서의 문화적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하고 인류가 당면한 세계관적 질곡에 대한 돌파구 찾기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서구적 공간관을 비판하고 동양적 공간관을 예찬한 결과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비판이 있다. 만약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싶다. 그러나 논증의 객관성이 중요한 곳에서 주관적 가치판단이 개입되게 하지 말자는 비판에는 반론을 제기하고 싶다. 여기서 다루는 주제가 어떠한 형태로든 주관적 가치판단이 배제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주관적 가치판단의 개입이 논문의 가치를 떨어뜨린다고도 보지 않는다. 이 논문은 어느 정도의 문명 비판적 의도를 처음부터 갖고 있다. 걱정되는 것은 비판과 예찬의 논리적 타당성이지 가치판단의 개입여부 자체는 아니라고 본다. 사족을 붙이자면 지금의 시대는 서구적 관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무엇보다 필요로 한다. 그리고 동양적 관점의 새로운 발견과 회복 역시 필요로 한다. 이러한 논문의 배경적 의도가 먼저 이해되었으면 한다. 논의 전개는 편의상 대비가 되는 대귀(對句)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각 장의 제목을 붙였다. 그 제목들은 일반적인 논문의 형식을 따르는 방식이기 보다는 이 논문에서만 적용되는 논리전개의 흐름을 구성해 내는 방식이다. 형식적 일반성보다 논리전개방식의 고유성이 존중될 수 있었으면 한다.

2. 空間 - 非空間

사람은 공간과 시간을 산다. 그러나 사람은 공간과 시간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우리가 아는 공간·시간의 개념은 그것이 있는 그대로의 자연적 공간·시간의 실체가 아니고 인간이 공간·시간

을 생각해보는 하나의 사고실험일 뿐이다.¹⁾ “시간”과 “공간”이라는 단어는 인간존재의 근원이 되는 시공간적 상황을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해 본 것이다. 공간과 시간을 “사는 것”과 그것을 “아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이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표현은 그것을 알기 위한 인간의 하나의 시도일 뿐이다. 인간이 아는 것은 시공간에 대하여 그렇게 표현된 인간의 관념적 실험일 뿐 시공간의 실체가 아닌 것이다. 모든 인간이 시간·공간을 사는 방식은 같거나 비슷할 수 있으나 그것을 아는 방식은 문화권마다 다르다.²⁾ 문화권마다 아는 방식이 다르다는 사실은 인간이 시간·공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인간에게는 시간·공간에 대한 앎의 시도만이 있었을. 뿐이고 그러한 시도에 따라 개념화하였다는 것이 인간이 그것을 알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공간”과 “시간”이라는 말은 영어의 “Space”와 “Time”의 번역어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시간”, “공간”이라는 말은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우리말, 우리개념이 아니다. “Space”와 “Time”이라는 말은 객관적인 순수 자연상태의 공간과 시간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있으며 인간의 언어가 바로 그 공간과 시간을 정확하게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공간(Space)”과 “시간(Time)”은 공간과 시간이라고 사고되고 언어적으로 명명된 바로 그 특정 개념만을 가리킨다. 시간·공간이 그렇게 인간에 의해 생각된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간과 시간이라는 것이 모든 인간에게 원시부터 영원까지 있었고 미래에도 있을 객관적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상 그것은 그렇게 특정 방식으로 개념지워 생각하는 문화권에서만 있었던 인간이 만들어 낸 개념일 뿐이다.

1) 시간·공간에 대한 이러한 문제는 여러 문헌에서 언급되고 있다. 일례로 A. Blake, 「A Seminar on Time」(1980, Laymont Communication)의 Space, Time and Existence 라는 section(p.19-32)에 시간 공간이라는 말은 “존재의 한계” 때문에 생긴 말이라고 한다. 또는 시간·공간은 없기 때문에 무엇인지 물을 수가 없다는 말을 하고 있다.

2) 시간에 관해 최근에 나온 책으로서 움베르토 에코 외. 「시간박물관」 김석희 역, 2000, 푸른숲, (원제 : The Story of Time)이 있다. 이 책에는 각 문화권마다 시간을 어떻게 다르게 이해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우선 시간과 공간을 분리하여 파악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개념규정 방식이다. 시간과 공간이 서로에게서 분리 가능한 것인가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차원보다 훨씬 복잡한 물리학적, 철학적 과제이다. 현대물리학은 이미 시간과 공간이 독립적으로 계량가능한 절대객관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놓고 있다.³⁾ 그렇게 따로 떨어진 실재로서의 시간·공간은 주로 공간적 거리와 시간적 길이로 계량가능한 수학적 또는 수리적 단위로서의 시·공간 이해를 깔고 있다. 즉 수학적이고 기하학적 확인이 가능한 순수하고 절대적인 물리적 공간과 시간을 의미한다. 우리는 일상적 삶의 구체적 공간들을 통해 공간을 인식하고 시계와 달력을 통해 시간을 인식한다. 그러한 시·공간은 우리에게 그렇게 인식된 시·공간일 뿐 시·공간의 본래적이고 실재적인 모습이 아닐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공간과 시간이라는 단어는 이미 특정 문화권의 시·공간이해의 방식을 전제하고 있는 단어들이다. “시간” “공간”으로 인식되는 그 어떤 대상이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실재(實在)의 실체(實體)로서 이해되는 것은 하나의 커다란 착각이다. 즉 우리에게 인식된 시간 공간은 일종의 세뇌되어 있는 방식으로서만 인식 가능한 특정 개념의 보편화이다. 지금 한국의 건축인들은 아마도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건축에서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에게 공통적이고 보편적으로 실존하는 실체로서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공간”이란 것은 그러한 말이 있다는 사실자체를 포함해서 특정 문화형식의 산물이다. “공간(Space)”이라고 인식 가능한 내용은 보편적이고 자연적인 실체가 아니다. 그렇게도 사유 가능한 하나의 관념일 뿐이다. 우리는 건축에서의 “공간”이란 것을 생각할 때에 공간을 그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인상대로 어떤 하나의 실체적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에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 언어적 개념이 실체적 존재인 것처럼 오인되고 나면 착각의 순환고리를 끊기가 어려워진다.

“공간”이란 것은 없다면 없다. 공간이란 그렇

게 사유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끼리 통하는 세계인식의 한 방편일 뿐이다. 공간이란 것을 그렇게 인식해야만 하는 고정된 절대적 이유가 없는 한, 공간이란 것은 없다고 보면 없다. 즉 공간이란 생각은 인위적으로 창작된 하나의 관념일 뿐이다. 그것은 하나의 가정이다. 인간의 시공간적 경험을 그렇게도 가정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사고실험일 뿐이다. 그러한 가정을 인정하지 않으면 공간이란 것은 없어진다. 공간이 없어진다는 것은 공간이라는 실체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공간에 대한 인간의 특정 가정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건축에서 공간이 없어진다고 하면 상상이 되지 않는 일이겠지만 그 전에 우리는 건축에서 공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미 특정 문화권의 특수한 문화적 상상력을 통해서 각색되고 고정된 관념으로서의 공간을 실체적이고 보편적인 공간의 실체인 것처럼 고정관념으로 받아들인 것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여야 한다. 우리가 “공간”을 보편적 실체로서 생각하는 것은 바로 동서양의 문화침투과정에서 생기는 언어를 통한 사고의 동화(同化)현상 같은 것일 뿐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공간”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는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에 도달해 있고, 그렇게 공간이란 말을 쓰며 의사소통을 할 때 우리는 공간이라는 개념의 문화적 특수성은 망각하고 그것이 인간 모두에게 보편적인 실체인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사고에서 공간이란 것이 고정적인 개념이 되어버려서 그렇게 주입되어 있는 “공간”이라는 고정관념을 벗어난 다른 사고실험이 불가능해지게 된다. 공간이라는 단어가 규정해버리는 관념적 구조를 벗어나서 공간을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져버린다. 이것 역시 언어에 의한 세뇌이고 세계관적 흡수동화 과정이다. 우리는 서양 사람과 거의 똑같이 “공간”을 “공간(Space)”으로 생각하며 건축행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건축은 서양건축에서의 공간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공간들을 생산해내고 있다. 공간을 바라보고 사고하고 인식하는 방식이 같을 때 같은 건축적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언어적 세뇌의 막강한 힘에 새삼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언어 내지 언어를 통한 특정 사유방식의 침투는 인간의 정신과 삶을 그 언어의 틀 속으로 흡수동화 해버리는 무서운 힘을 갖고 있다.

3)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은 공간의 주체인 물체와 시간의 주체인 사건이 불가분(不可分)한 시공연속체 (Space-Time Continuum)라고 주장한다. 여기에 관한 문헌적 근거는 따로 필요없을 만큼 이미 보편화된 지식이다.

공간은 없다. 공간이란 것은 없다고 생각하면 없으며 없어서 아무 문제도 없다. 공간을 생각하는 우리들의 습관으로 볼 때, 공간이란 것이 없어진다면 큰 일 날 것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공간은 없어질 수 있고 또 없어져야 한다. 공간이 없어져도 될 뿐 아니라 없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물증(物證)을 통해 확인하려면 우리의 전통건축을 보면 된다. 전통건축은 “공간(space)”이란 특수 관념이 없이 지어진 건축이다. 전통건축에도 공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은 또다시 “공간”이란 특수 관념을 보편적인 실재로 인정하는 세뇌과정과 그러한 습관화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는 점을 반복해서 지적하게 한다. 인간의 문화적 삶에서는 공간이라는 순수보편적 실재가 실존하기 전에 그것을 표현해내고 의미지우는 언어적 유희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한 표현되고 의미 지워지는 언어유희를 보편적이고 유일한 정당성으로 오인할 때에 그렇게 오인하는 사람들에게만 공간이란 관념이 강한 설득력과 타당성을 갖고 세력을 형성할 뿐이다. 전통건축에 공간이란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을 같은 “공간”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한 문화권과 다른 문화권과의 충돌에서 생기는 언어동화과정 같은 것이고 거기서 비롯되는 의미확대현상 같은 것이다. 즉 한 문화권에서 생성된 특정 관념을 다른 문화권에서도 적용가능한 보편개념으로 확대해석하게 하는 문화침투현상이다.

우리의 전통건축에는 “공간”이란 것이 없다. 우리가 전통건축의 공간을 “공간”으로 보는 것은 지금 시대의 우리가 그것을 공간으로 보는 것 이외에 다른 사고의 가능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줄 뿐이다. 전통건축은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공간”이란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지어진 건축이다. 우리는 우리의 전통건축을 말하면서 그것의 “공간”에 대해 말한다든 것을 당연한 것이 아니라 매우 이상하고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전통건축은 “공간(space)”과 무관하게 지어진 집이고 전통건축에는 “공간”이 없다.⁴⁾ 전통건축이 지어지는 과정에서는 공간이란 단어도 없었고 지금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공간이란 관념도 없이 지어진 집들이다. 그렇게 집짓고 사는 것을 수 천 년 동안 해왔었으나 아

무 문제가 없었다. 한국역사 전체의 흐름에서 볼 때 20세기에 와서 건축전문인이라고 자처하는 우리들만이 전통건축을 “공간”이라는 관념적 틀 속에 집어넣고서 그러한 방식으로 “건축”과 “공간”을 생각할 뿐이다. 한국의 역사 전체에서 그렇게 “건축”을 생각하고 그렇게 “공간”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우리들 말고는 없었고 과거의 집들은 그러한 우리의 “건축”과 “공간”과는 전혀 무관하게 지어진 집들이다.

우리의 옛집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공간”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생각에 의해 지어진 집들이다. 우리는 우리의 옛집에서 “공간”에 해당하는 다른 생각이 무엇이었는가를 새롭게 문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옛집에서의 공간을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공간으로 보아버리는 것은 짐승의 허파를 물고기의 아가미와 똑 같은 것으로 보아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산소를 얻는다는 기능은 같을지 모르지만 허파와 아가미는 다른 것이다. 우리는 전통건축에서의 공간이 본래적으로 어떻게 달랐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짐으로서 전통건축에서의 공간이라는 것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을 세워야만 한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입된 “공간”이라는 세뇌의 껍질을 벗고 우리의 옛 집을 그것이 그렇게 생기게 한 본래적 입장에서 다시 보게 하는 것이다. 옛집의 모습을 외래적으로 주입된 세뇌의 안경을 벗고 보여지는 본래의 모습 그대로 보고 싶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러한 옛 집의 본래적 시각이 우리건축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도 그렇다. 인류건축의 미래가 언제까지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과 같은 “공간”을 추구하는 건축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데에는 “공간”을 말하되 “공간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말해야하는 불편함이 따른다. 그 다른 “무엇”을 “무엇”이라고 지칭할 방법이 없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즉 “공간”을 지칭하면서 “공간이 아닌 무엇”으로 불러야 하게 된다. “공간이 아닌 공간”을 “공간”이라고 부르면서 논의를 전개할 수가 없어서 편의상 그것을 “비공간(非空間)”으로 불러본다. “건축”아닌 “건축”을 달리 지칭할 방법이 없어서 “비건축(非建築)”이라고 불렀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⁵⁾ 우리는 “공간”

4) 이러한 문맥에 관련되는 필자의 글로서 “동양건축에서의 집과 사람”, 『공간』 1986. 6,와 “동양건축에서의 건축”, 『꾸밈』 1986. 10 이 있다.

5) “비건축”이라는 표현은 김성우, “동서양건축에서의 건축의 의미” 『동양예술』 (2001. 5)에서 썼던 표현이다.

예기를 “비공간”으로서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져 있다. “공간이면서 공간이 아닌 공간”을 “공간”으로 규정할 수가 없어서 “공간”과 “비공간”으로 일단 나누어 놓고 보자는 것이다. 이러한 언어적 지칭의 불편함은 바로 우리가 처한 문화적 상황의 불편함을 그대로 나타내 주는 현상이다.

3. 空間 - 建築

서구인에게 공간이란 것은 “物”에 대한 “非物”, 즉 “物이 없음”을 전제로 한 개념이다. “有”에 대하여 有가 아닌 “無의 영역” 내지 “無의 공간적 범위”를 지칭한다. “없는 부분”, 또는 “있음이 아닌 부분”의 의미가 된다. 다시 말하면 공간이란 것은 “비어있는 공간이 아닌 무엇[物, 有]”에 대한 상대개념이다. “있음”에 대한 “없음의 자리(공간)”인 것이다. 그때의 “없음”이란 “있음”에 대한 “없음”일 뿐, “있음”과 “없음”사이의 상호보완적이거나 양자동반(兩者同伴)적 개념이 아니고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고 대치되는 개념이다. 공간이란 “있음이 없는 곳”인 것이다. 이 때에 서구인들의 관심은 사실상 “없음”에 쏠리기보다 먼저 “있음”에 쏠려 있었다. 그들의 관심은 “없음의 허공(Emptiness)” 자체에 쏠리기보다 “있음의 실체(Substance)” 쪽에 먼저 치우친다.⁶⁾ 그들의 지적 노력은 희랍사유의 시작에서부터 “존재”에 쏠리고 “실체” 쪽으로 치우쳐 있었다. 그들이 우주의 본질을 찾을 때 빈 허공에서 찾기보다 실체적 존재로서 확인 가능한 대상에서 먼저 찾으려 했다. 그것이 관념적 실체가 될 망정 실체적 구체성이 없으면 안 되었다.⁷⁾ 서구인에게 있어서 공간이란 것은 이러한 “있음”과 “없음”의 이원적(二元的)구조

여기에서의 공간-비공간 논의와 거의 흡사한 상황에서 개진되었기에 언급하였다.

6) 張法, 「동양과 서양, 그리고 미학」, 유중하 外. 역, (1999, 푸른숲), p. 42 여기에서 이 책의 저자는 “서구인이 우주의 본질을 추구할 때 중시하는 것은 무가 아니라 유(being)이고 허공이 아니라 실체(substance)이다” 라고 기술한다.

7) 희랍 사유에서 진리 탐구의 노력이 물리학적 존재에서의 근원적 실체 탐구의 방향으로 진행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실체적 구체성은 그러한 탐구의 경향을 지칭한다. 거기에는 수(피타고라스) 원자(데모크리토스) 같은 개념적 성향을 포함하는 경우와 물(타레스), 불(헤라클레이토스)와 같이 물리적 성분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들 모두가 실체적 구체성을 갖는 무엇을 대상으로서 하였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다. 물론 프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데아나 형상의 경우도 관념적 실체성을 추구하는 경향이기는 마찬가지이다. B. 뢰셀 「서양철학사」 상 고대 편 참조

속에서 있음보다 실체적 구체성이 덜 분명한 없음 쪽에 해당되는 영역이었던 것이다. 그들에게 “공간”이란 기본적으로 “物的 있음이 아닌 쪽”이었다. 공간이란 “物”의 반대이고 “있음”의 반대개념이었다. 그것은 비어있는 배경이었지 그 “비어있음”이 주체적이고 실체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약하였다.

한편 서구인에게 있어서의 “공간” 또는 “허공”은 物的 실체와 분리되어 있는 반대적 개념일 뿐 공간과 물체가 구조적으로 연관되어있지 않았다.⁸⁾ 공간과 물체는 서로 “상대가 아닌 다른 무엇”일 뿐 “서로를 필요로 하는 무엇”,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무엇” 또는 “서로 합해서 하나가 되는 무엇”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공간이란 物的 실체의 있음을 위해 필요한 장소적 여건일 뿐이다. 사물은 주(主)가 되는 “있음”이며 공간은 그 배경이 되는 사물이 “없는” 여건이다. 물체는 자신의 주체적 존재를 위해 구조적으로 공간에 의존하거나 실체의 존재를 위해 공간과의 상호관련성이 요청되지 않는다. 공간은 배경적 여건으로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공간적 여건이고 비어있음의 상태일 뿐이다. 그 비어있는 상태는 기본적으로 의미 부여의 중심적 대상이 아니었다. 건물과 같은 물체는 공간을 점거할 뿐이다. 공간은 물체에 대해 배경적 가치만을 가질 뿐이었다. 건축에서 의미부여와 가치인정의 대상은 우선적으로 물리적 실체에 있었지 공간이 아니었다.⁹⁾ 서양근대건축의 전개과정에서 공간의 새로운 인식이나 공간론(空間論)의 대두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그것은 이러한 전통적 공간인식경향 자체의 변화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반성적 재해석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¹⁰⁾ 그러한 근대건축에서의 공간인식도 전통적 공간이해의 틀을 바꾸어 놓은 것은 아니었다. 건축공간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8) 張法, 전계서 p. 42 여기에서 저자는 “실체와 허공은 분리되어 있으며 그 둘 사이에는 내재적 연관이 없다.”라고 기술한다.

9) 야게마츠 유우지(上松佑二), 「건축공간의 미학」 이두원 역 (2000, 현대건축사) p. 15 참조

10) 서양에서의 공간논의의 시작은 19세기 후반이다. 上松佑二, 「建築空間論」, (1986, 早稻田大學出版部)에서 저자는 서양공간론의 전개를 3개의 단계로 나누며 제1기를 1860-1900으로 보고 있다. (제 2기는 1900-1941, 제 3기는 1940-1980으로 나눈다.) 한편 공간론의 전개를 일원론적, 이원론적, 다원론적인 개념의 변화로서 설명한다. 그러한 시기구분이나 개념적 분류의 타당성을 떠나서 서구의 근대적 공간론의 계보를 독일의 경우를 중심으로 하여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부각시키고 있으나 그 성과는 주로 건축 내부공간에서의 예술적 경험, 양식적 구분, 미학적 해석, 등의 주제에 머문다. 이러한 논의의 범주는 건축의 내부공간에 대한 사변적인 의미부여에 가까운 것이었고 서양건축에서의 공간 자체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만든 것”이고 “물리적 실체가 아닌 비어있음”이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변적인 해석보다 서양건축사 전체에서 공통적인 공간이해의 일반적 경향이다.

물체가 없는 상태로서의 자연적 공간, 또는 우주적 허공(虛空)이 건축에서는 불가피하게 보다 구체적인 모습을 띠지 않을 수 없다. 즉 허공적 공간이 벽, 천장과 같은 物的 실체 사이에서 物的 실체에 의해 구체적으로 형상지워 진다. 우주적 비어있음에서 떨어져서 벽과 벽 사이의 비어있음으로 한정되고 구체화되는 것이다. 그 비어있음은 물체적 존재성이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벽과 저 벽 사이의 입체적 “거리(distance)” 개념으로 확인될 수밖에 없다. 물론 같은 공간이 바닥과 천장 사이의 거리로도 구체화된다. 이렇게 물리적 사물에 의해 구체적으로 구획된 비어있음이 건축에서의 “공간”으로 인식된다. 그래서 공간은 수리적(數理的) 치수를 갖게 되고 기하학적 형상을 갖게 된다. 내용적으로는 우주적 비어있음과 같은 것이지만 건축 안에 들어와서 기하학적 형상성과 수리적 단위성을 갖게 되었고 그것이 건축적 “공간”으로서 우주적 허공과는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배경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우주적 허공”이 “건축적 공간”이 되는 것은 비어있는 허공[없음]이 존재적 실체[있음]가 되는 변화가 아니다. 또한 물체가 갑자기 허공과 구조적인 관계를 요구하게 된 것도 아니다. 그것은 단지 필요에 의한 “구획의 결과”일 뿐이다. 공간이란 건축의 실체적 물성(物性)이 자기목적에 따른 형상화에 의해 결과적으로 생겨난 것으로서 그러한 의미에서 “인공화(人工化)된 비어있음의 덩어리”들인 것이다. 그것은 불가피한 결과태(結果態)일 뿐 자체로서 원인적 동기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기하학적이고 수리적 관념화에 적합하므로 그러한 관념적 의미부여가 가능했던 것일 뿐이다. 우리가 건축에서 공간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런 “인공화된 비물체(非物體)적 부분”이다. 인공화되지 않은 자연적 허공은 논의와 관심의 범위에서 벗어나며 물체와의 유기적 연관성도 중심적 관심사가 아이었다.

자연적 허공의 일부가 건축에서는 구조체에 의해 “입방체적 공간(Cubic Space)”으로 잘라진다. 건축이 기본적으로 바닥, 천장, 그리고 4개의 벽체로 구성되는 이유로 해서 건축에서의 공간은 이러한 입방체적 내부공간을 의미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는 일상적으로 “공간”이라고 부르게 된다. 건축에서의 공간이란 기본적으로 “내부공간”이다. “외부공간”도 “공간”으로서 규정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내부공간에 비하여 볼 때 의미 있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주적 허공으로 연장되는 거대한 없음의 영역이다. 수학적 형상화가 되지도 않으며 인간의 삶의 필요에 따른 기능화가 되지도 않는다. 서양건축에서의 공간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내부공간을 의미한다는 점에 대하여 우리는 새롭게 인상을 받을 필요가 있다. 건축적 공간, 또는 건축에서의 공간이란 것은 내부공간의 영역을 떠날 필요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다. 건축에서의 공간논의를 내부공간에 집중시키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서양건축이 갖는 문화적 입장이 그러한 것이다. 공간이해의 방식이 그러하면 건축은 당연히 “내부공간 지향적 건축”이 될 수밖에 없다. 건축에서의 공간이란 것은 “그 내부에서 구조체에 의해 형상화 된 없음의 부분”이었던 것이다.

서구건축에서의 입방체적 공간이란 것은 아무 것도 없는 비실체적인 부분이라는 점에서 우주적 허공과 차이가 없지만 그것을 우주적 허공에서 떼어내어 인간의 손으로 건축화 하였다는 점에서 새롭게 의미부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공간이란 것은 그렇게 인공화된 부분을 한정적으로 지칭하게 된다. 우주적 허공에서 떼어내어 졌다는 점, 그리고 인공적 형상화가 되었으며 그렇게 되기 위하여 수학적 물리학적 관념화과정을 거쳤다는 점이 그 공간을 건축공간이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즉 인공적 개념화와 형상화를 거치지 않은 우주적 허공과는 다른 무엇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이 서양의 건축공간의 의미를 규정 하게 하는 요건이 된다. 즉 인공적 개념화와 형상화를 거치지 않으면 공간이 아닌 것이다. 공간이란 인간의 손과 머리를 거쳐서 “새롭게 탄생된” 무엇이 된다. “인간을 거친 결과” 또는 “인간에 의해서만 가능한 개념화와 형상화”가 건축공간을 건축공간이게 하는 요건이 된다. 공간에서 중요한 것이 공간자체이기보다 어떻게 그리

고 얼마만큼 인간을 거쳐 새롭게 만들어졌는가 되어버린다. 건축공간이란 더 이상 우주적 허공으로 남아있지 않고 따로 떼어내어져서 인간에 의해 새로 창조된 관념적 형상(form)인 것이다. 우주적 허공은 질료이고 소재일 뿐 그것은 공간이 될 수 없다. 인공적 형상화가 공간을 공간이게 하기 때문에 공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형상화의 방법과 결과이다. 건축공간은 인간에 의하여 새롭게 창조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건축공간을 말할 때 어떻게 인간에 의해 재창조되었는가 하는 측면만을 말하려고 할 뿐 그 우주적 허공으로 있을 때의 의미와 가치를 말하려 하지 않는다. 질료보다 형상이 가치에 있어서 우월하듯이¹¹⁾ 허공보다 공간이 가치적으로 우월한 것이다.

이러한 공간이해의 배경이 빠지고 나면 서구 문화에서의 건축공간의 이해가 어려워진다. 서양 건축 전통에서의 공간에 관한 문제제기는 인간에 의하여 재창조되는 측면으로서의 공간 논의로서 충분하였다. 질료적 원소재로서의 허공의 의미와 가치는 문제가 되어야 할 이유가 약하였던 것이다. 형상의 부분을 놔두고 질료의 부분을 문제시 하여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건축공간의 의미와 가치는 그 “형상성(形象性)”의 문제로 귀착되고 그것으로서 충분하였다. 그리고 형상화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수학적 기하학적 관념화를 거치게 하는 것이었다. 돔(dome)이나 볼트(vault)로 덮혀 있는 대형 성당의 내부공간 같은 경우를 상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 서양건축사에서 중요한 공간적 성취는 바로 수학적 관념화에 따른 공간적 형상(form)의 성취였다. 그것은 지금 우리들의 건축설계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근대건축에서도 공간이란 건축가에 의해서만져져서 만들어지는 공간의 형상 이외에 다른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인공화의 방식이 중요문제일 뿐이다. 건축공간에서 중요한 것은 공간의 형상이지 허공의 본래적 성질이 아니다. 작위(作爲)의 방식이 중요한 것이지 허공적 질료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건축가의 관심은 공간의 형상화에 있으며 그는 그의 머리가 생각해 낼 수 있는

대로 공간을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공간의 형상화에 관한 의지와 자유를 갖고 있으며 그러한 형상화를 공간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에게 있어서 질료로서의 허공은 잊혀져 있으며 기억해 낼 필요가 없었다.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건축의 공간을 말하고 있고 공간의 의미를 찾으려 하고 있다.

서양건축은 자연적 허공에 대하여는 벽으로 차단하고 그 속에 인간을 위한 내부공간을 구축하는데 관심을 집중시킨다. 즉 허공에 대하여는 차단(遮斷)적 입장을 취하면서 자기중심적이고 내부지향적인 공간적 성(城)을 쌓으려 한다. 그 성은 우주적 허공에 대하여 방어적이고 폐쇄적이다. 내부지향적으로 작동되는 자기만의 공간체계를 갖추려 한다. 여기에서 “인간의 공간”은 내부이지 외부가 아니다. 내부만이 형상화 된 것이지 외부는 질료적 상태로 남아있다. 내부공간만이 형상화 되고 재창조된 것으로서 의미있는 관심의 대상이 될 뿐이다. 한옥에서 마당이라는 외부공간이 내부공간에 비하여 개념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중심에 놓이는 것과 비교할 때 반대가 되는 현상이다. 서양건축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옛 집과 같은 마당이 없다.¹²⁾ 우리 전통건축에서의 마당은 내부공간과 같이 인공화 되지는 않았지만 건축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삶의 자리이다. 서양건축에서의 건축은 기본적으로 내부를 위한 것이고 내부지향적인 것이다. 그렇게 내부중심적인 건축을 만들려면 반드시 내부와 외부를 차단하는 단절의 벽이 필요하고 그 벽은 결과적으로 자연적 허공에 대한 단절의 벽이 된다. 공간이란 것은 그러한 내외차단적 건축에서의 내부공간이고 그것은 인간중심적 사고의 산물이 아니고는 생길 수 없었던 개념이었다.

공간이 내부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은 우주적 허공으로서의 원시적 공간이 인간에 의해 인공적으로 재규정되고 사용하기에 적당하도록

11) 질료(matter)와 형상(form)에 관한 논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거를 지적하는 것이다. 모든 존재를 질료와 형상의 구성비에 따라 가치판단 하되 형상의 부분이 많을수록 우월한 것이라는 주장을 말한다. 여기에 관하여는 김성우, “동서양건축에서의 형태의 의미” 「건축역사연구」(2003.12) 참조. 이 논문에서는 형태의 문제를 논하였지만 공간의 문제도 똑 같은 사고방식의 틀 속에 들어가 있다는 점이 기억되어야 한다.

12) 서양건축에도 중정(courtyard)은 있다. 여기서는 중정과 우리의 마당을 구분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중정도 마당의 성격을 부분적으로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의미에 있어서 한국의 마당과는 다르다. 그 다른 의미를 길게 설명하는 일은 또 다른 논의의 장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다른 장에서도 어느정도 하여 왔기에 여기서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우리의 마당과 서양의 중정의 유사성은 그 형태와 기능에 관련된 측면에서 거론될 수 있겠지만 그 발생 배경과 문화적 의미는 매우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가공되었다는 것이다. 즉 원자재로서의 허공이 인간에 의해 건축적으로 가공되어 사용가능한 실내 공간으로 탈바꿈되었다는 것이다. 그러한 생각은 사실상 공간만이 아니라 건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인간이 자연적 질료를 사용하여 의미있는 형상을 인간의 사유를 통하여 만드는 것이 건축이라고 하는 생각은 공간에 대한 생각과 궤도를 같이 한다.¹³⁾ “인공적 탈바꿈”이 바로 건축이 되게 하고 공간이 되게 하는 근간이 되는 것이다. 인간에 의해 탈바꿈되었기에 그것이 우주적 허공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일 수 있다는 논리가 된다. 그것은 역시 인간중심적이고 자아중심적인 관점이다. 서양건축은 자연적 허공에 대해 차단하여 인간 자신의 영역을 내부에 확보하는 방법으로 자아(自我)를 확보하려 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공간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내부화된 “인간의 영역”을 가리킨다. 모든 건축이 자연에 대하여 인간을 위한 내부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 가능하겠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건축의 발생학적 의미가 아니다. 공간의 의미규정 방식에 있어서의 인간중심적 측면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공간은 동질적 성격을 공유하는 자연적 허공에 대한 애정에서 출발된 것이 아니고 인간의 자기 의지 구현과 자기 영역 확보라고 하는 인간중심주의에서 출발한 것이다.

서양건축의 전통에서 내부공간은 우주적 허공의 자연적 공간성(空間性) 자체의 가치와 의미가 추구된 것이기 보다 인위적으로 내부공간화된 공간을 말하는 것이며 그 내부공간은 여전히 물리적 실체와는 분리되고 격리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내부공간의 성취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한정되는 결과에 의해 남게 되는 빈 곳이지 공간의 자연적 공간성 자체의 자기발현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구조체의 물리적 형상화를 방법으로 형상화 될 뿐이다. 공간은 땅 위의 공간도 아니고 하늘 아래의 공간도 아니고 바람의 흐름과도 무관한 곳이며 인간에 의해 한계 지워진 건물 내부의 빈 곳일 뿐이다. 건축에서 이러한 종류의 공간 개념이란 것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물론 조적조 위주의 내외차단적 구축방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파르테논신전의 공간이란 것은 짙고

밀폐된 내부공간이다.¹⁴⁾ 중세교회의 공간이란 것도 내부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밀폐된 내부공간이다.¹⁵⁾ 그것은 인간중심적으로 인공화된 비어있는 부분을 가리키는 것이지 자연 그대로의 공간 자체의 속성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우주적 허공과의 교섭을 위한 것도 아니었다. 그것이 서양건축의 전통에서 “공간(space)”이라는 것이 갖는 성격이었다.

서양건축은 그 역사에서 일찍부터 내부공간의 확대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건축기술의 진보가 어떻게 하면 내부에 기둥이나 벽이 없이 높고 큰 내부공간을 만들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있었던 것 같다. 석조건축 기술만으로는 내부공간의 확대에 한계가 있었고 그 한계는 벽돌을 사용하는 조적조의 기술을 받아들여 극복할 수 있었다. 아취(arch), 돔(dome), 볼트(vault) 및 그 합성을 통해 만들어 지는 지붕 덮기 기술이 서양건축을 진보하게 하였다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동양에서는 19세기 까지 나무 보의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려 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할 때에 건축을 통해 추구하려는 목표가 매우 달랐던 점을 읽을 수 있다. 동양에 비교해 보면 서양에서는 고대건축에서부터 동양보다 엄청나게 큰 내부공간의 성취를 이루었다.¹⁶⁾ 이러한 성취는 건축에서 커다란 내부공간을 만드는 것이 건축행위의 중요한 목적이고 숨어있는 동기가 되지 않

14) 아테네 여신상이 있었던 파르테논 신전의 내부공간은 밀폐된 곳으로서 채광의 여부와 방법이 알려져 있지 않다. 그 곳은 외부 또는 허공과 교감하는 공간이 아니다. 인간을 목적을 위하여 구축된 “내부공간”만의 “공간”인 것이다. 인류의 건축사에서 이렇게 짙고 밀폐된 내부공간의 구축은 상당히 특이한 것이다. 보기에 따라서는 이것은 삶의 공간이 아니고 죽음의 공간이다.

15) 서양 중세교회의 내부공간도 대부분 내외가 차단되어 있다. 스테인드 그라스는 내부의 경험을 위한 것이지 외부로부터의 조망을 위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의 공간은 내부의 비어있는 부분을 인간이 효과적으로 경험하게 하자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16) 이스탄불에 있는 하기아 소피아(Hagia Sophia)는 6세기 전반(532-537)에 지어졌다. 중심 상부의 돔은 직경이 31m이고 높이는 55m이다. 6세기면 우리나라의 황룡사가 지어지던 삼국 시대에 해당된다. 황룡사 금당 내부에 불상을 모신 부분의 보 길이가 10m 내외인 것과 비교할 때 3 배 이상 차이가 난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브루넬레스키가 지은 신타마리아 델 피오레 성당 돔의 직경이 43m가 되는 등 규모가 더 커진다. 동양에서는 나무의 크기가 한계가 있는 이상 큰 차이가 있을 수 없었다. 서구인들의 내부공간 확장에 대한 강한 집착과 성취에 대해 우리는 그 배경을 새로운 관점에서 읽을 필요가 있다.

13) 여기에 관하여는 김성우, “동서양건축에서의 건축의 의미” 「동양예술」(2001.5)와 김성우, “동서양건축에서의 형태의 의미” 「건축역사연구」(2003.12)참조

고서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내부공간을 확장한다는 것은 바로 인간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것이었고 자아의 표현 가능성을 확장하는 것이었다. 내부공간을 확대시키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인간 자신을 확대시키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되었던 것이다. 여기서의 공간이란 것은 “공간의 공간”¹⁷⁾이기 전에 “인간의 공간”이었으며 그것은 다른 어느 곳에서 출발하기 전에 인간중심적 자아실현의 동기에서 나온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 물론 그러한 공간의 성취를 위해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동기도 개입되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공간성취의 사회적 배경 같은 것이며 그보다 근본적으로 자연세계에 대(對)한 인간세계의 독자적 자기실현 욕구가 건축의 내부공간 확장으로 나타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자연적 공간성(空間性) 자체의 실현이기보다 인간의 자아실현 욕구의 공간적 표현이었다.

내부공간이든 외부공간이든 그것을 만들게 하는 물질적 구성은 인간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공간자체는 인간의 창조물이 아니다. 인간은 내부공간을 확장시킬 수 있지만 내부공간의 공간성 자체는 인간의 노력으로 변질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인공화 하는 방법은 그것을 자연적 허공으로 남겨두지 않고 개념에 있어서 인공화 하는 것 말고는 없었다. 그러한 개념적 인공화의 대표적인 예가 공간이라는 것을 균질적이고 순수한 절대공간의 개념으로 바꾸는 것이다. 즉 자연적 허공을 인간에 의해 관념화된 공간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공간이 수학적이고 기하학적인 가치를 갖는 내용으로 바꾸는 것이다. 어찌 보면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부분이라는 비실체적인 공간을 어느 정도 실체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을 것이다. 공간자체는 인조화(人造化)될 수 없으며 그것의 수학적 관념화를 방법으로 하여 인간의 사유에 의한 작위(作爲)적 결과물로 바꾸는 것이다. 이러한 자연허공의 작위화(作爲化)가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공간인식의 실체이다. 그래서 그 공간에는 자연상태의 허공의 본래적 성격이 남아있는 것이기 보다 얼마나 큰 공간인가 하는 이 쪽에서 저 쪽까지의 “거리(distance)”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형상(form)”만이 남는다. 그 “거

리와 형상”으로서의 공간이 지금 우리에게도 각인되어 있는 공간의 개념이다. 사실 그것은 “공간”이기 전에 “공간에 대한 인간의 관념”이다. 물질과 같이 마음대로 작위화 할 수 없었던 공간에서는 관념적 작위화가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공간이 서양건축의 공간이었고 이러한 공간을 실현시킨 것이 서양건축이었다.

건축공간에 대한 이러한 장황한 설명은 무슨 새로운 공간개념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속에 주입되어 있는 공간이해 방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설명이다. “공간”이라고 부르게 되는 언어적 개념규정의 경향과 그렇게 정의되는 공간의 개념이 서양건축의 전통에서 하나의 “공간관(空間觀)”으로서 고정적 위치를 차지했고 근대건축의 확산과정을 통하여 세계적 보편성을 획득했던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 바로 그 공간관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드러내기 위해 길게 설명한 것일 뿐이다. 물론 이러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으며 또 부분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구적 공간관을 가능한 한 서양 내부에서 읽히워지는 방법 이외에 우리의 시각으로 읽어보려는 의도일 것이다. 우리에게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이해의 정확도보다 관점의 고유성이다. 서양 공간관에 대한 이해의 정확도는 어차피 그들의 이해방식을 따르지 않고는 얻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자기화하였을 때 우리의 공간에 대한 생각은 그러한 주입된 공간이해 방식에 의하여 점유되어 버린다. 그렇게 되면 그러한 공간관 이외에 다른 공간에 대한 생각이 도출되기가 어려워진다. 그리고 그러한 공간관에 따라 우리는 우리가 사는 공간을 만들 수밖에 없게 된다. 관점의 고유성이 필요하다는 언급은 바로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다.

길게 언급된 서구적 공간인식 경향은 서양건축과 서양문화의 독특한 경향이다. 그리고 그 성취의 성과에 대하여 우리는 감탄하고 고마워한다. 지금 우리의 관심은 그러한 공간관의 문화적 성격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그 개념적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다. 서양건축의 공간관은 문화적으로 특수한 것이고 특정의 건축관에 물리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대단히 인간중심적이며 관념적인 것이다. 그것은 일종의 “기하학적 관념화로서의 공간” 같은 공간이었다. 그것은 땅 위의 공간도 아니고 하늘 아래의 공간도 아니고 새

17) “공간의 공간”이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히 밝혀지지 않고 사용한 표현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허공의 공간”에 가까울 것이다. 그 의미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아래에서 동양적 공간의 의미에 관한 논의가 전개되면서 점차 드러날 것이므로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생략한다.

가 날아다니며 내가 숨쉬는 공간도 아니다. 인간에 의해 물리적으로 차별화 되고 개념적으로 관념화된 하나의 가정이다. 입방체적 단위공간, 균질적이고 순수한 절대공간, 유클리드 기하학이나 뉴턴의 물리학으로 논의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인식의 경향 같은 것이었다. 그것은 하늘과 붙어있을 필요도 없고 땅과 연관될 필요도 없는 따로 떨어진 독립공간이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크기와 모양이지 공간 본래의 속성이 아니다. 인간이 그 공간을 숨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여지고 경험되는 방식이 중요한 것이다.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와 같이 그러한 공간관이 유일한 공간관인 것처럼 세뇌되어 있을 때 인류의 건축공간이라는 것이 모두 그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것은 커다란 착각이다. 그러한 공간관은 서양문화권에에만 해당되는 공간관이다. 최소한도 동양의 건축은 그러한 공간관을 따르지 않았다.

4. 空間 - 天地

동양의 공간은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과 그 대답을 생각하려 할 때 먼저 그 언어의 사용에서부터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서구 전통에서의 공간이 앞에서 논의한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을 때 동양에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공간”이란 것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공간의 서구적 의미를 염두에 둘 때 “동양의 공간”이라고 말해질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없었다. 그러한 개념으로서의 “공간”이라는 단어가 그러한 방식으로 쓰이지를 않았다.¹⁸⁾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동양의 공간을 논하려면 그것이 이미 “공간(space)”이 아닌 “비공간(非空間)”이라는 정의를 해 놓고서 말을 시작해야 한다. “공간”이 아닌 “비공간”이라고 규정을 해 놓고 “공간”얘기를 해야 하는 모순이 우리가 지금 처해있는 상황이다. 이 모순을 피해가는 방법이 있다면 동양의 공간을 “공간”이란 말을 쓰지 않고 그 본래적 의미가 설명 가능한 다른 무엇으로 대치하고 그 대치된 무엇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동양의 공간이 이야기되게 하는 것일 것 같다. 그 “무엇”에

해당하는 말로서 “天地”를 생각해보고 싶은 것이다.

동양에서의 “天地”는 “우주” 또는 “자연”을 의미하는 정도로 광범위하면서 동시에 “하늘”, “땅”이라는 물리적 구체성을 갖는 의미로 쓰인다. 또 “하늘 - 땅”을 하나로 연계된 체계로 보고 그것을 우주자연의 개념적 근간(根幹)으로 해석하는 사상적 추상성을 같이 갖는 단어이다. 영어에는 “sky”와 “earth”라는 단어는 있지만 “sky-earth”라고 붙여 쓰는 단어가 없다. 그것은 “하늘과 땅”이라는 개체적 존재는 우선적으로 인정하지만 하늘과 땅이 하나로 합해진 “하늘-땅”이라는 것은 실존하는 실체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자에서는 “天과地”가 각각 하나의 단어로도 쓰이지만 “天地”라는 또 하나의 단어로써 더 일상적으로 자주 쓰인다. “天과地”는 각각 하나의 독립적 실체일 수도 있지만 그 전에 “天地”라는 “하나로 연계된 전체”의 부분이라는 개념이 처음부터 깔려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동양의 공간”을 생각할 때 서양의 “공간(space)”에 해당하는 가까운 단어가 없었다는 사실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 “공간”이란 단어가 없었다는 것은 공간을 서양과 같은 방식으로의 “공간”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강한 발언인 것이다. 즉 “공간”은 “공간(Space)”이 아니라는 것이다. “공간”이란 말을 그런 식으로 쓰기 시작하면 이미 “공간 아닌 것”을 “공간”이라고 말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즉 그러한 의미에서의 공간이란 없는 것이고 없어야 한다는 무언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천지(天地)”는 말 그대로 “하늘-땅”이다. 天地의 눈으로 볼 때 공간이란 것은 “天地에서의 天(하늘)” 부분에 속하는 부분이다. 그러하되 공간은 天에서 따로 떨어져 있을 수 있는 부분 또는 따로 떨어진 天이 아니라 天과 이미 하나가 되어있는 “같은 天”이다. 공간이란 “天이 아닌” 다른 무엇이 아니라 “같은 天”일 수밖에 없는 “天 자체”이다. 그리고 그 天은 地와 붙어있는 天이다. 地가 없으면 天도 없고 天이 없으면 地도 없다. 그래서 “공간”에 해당하는 대응 개념으로서 “天”만을 사용할 수 없고 “天地”가 하나로서 쓰여 지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는 서양의 “공간(space)”에 해당하는 것이 天地라는 뜻에서 “天地”를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이란 것을 인식하는 방식과 관점을 “공간”에서 “天地”로 바꾸어야

18) 동양에서 “空間”이라는 말의 용례를 굳이 찾자면 管子의 「輕重甲」에서 “天地의 사이(間)”라는 뜻으로 쓰인 경우가 찾아진다. 諸橋徹次 「大漢和辭典」 八卷 “空間” 참조, 중국 「大漢和辭典」에서는 “空間”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물론 管子의 用例에서도 그 단어가 우리가 쓰는 영어의 “Space”의 개념과는 다른 경우이다.

한다는 의미에서 “天地”를 쓰는 것이다. 좀 더 정확하게 대응하는 단어를 찾자면 공간을 “天地”라고 대응시키지 않고 “하늘”로 대치시켜야 하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天地에서 地를 떼어내고 天만을 문제시 하게 되며 그것은 이미 동양적 天地이해에서 멀어지게 된다. 地에서 天을 떼어 내고, 또 天에서 공간을 떼어내고 냈을 때의 공간이란 것은 떼어내어지지 않는 무엇을 억지로 떼어냈을 때에만 가정할 수 있는 이상한 가정물(假定物)이 되어 버린다. 그렇게 가정되어야 하는 공간이란 것은 본래 없는 것이고 공간은 天으로 복귀되어야 하고 天은 다시 天地의 天으로 복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天은 집 안에 있건 밖에 있건 天이다. 집 안에 있는 天은 天이 아닌 다른 무엇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天은 사람이 그것을 “하늘”이라고 부르던 “공간”이라고 부르던 관계없이 天地의 天이다. 어차피 세상에는 天地의 天과 地 말고 다른 것은 없었다.

우리는 “공간”을 “天地”로 바꾸어 단어를 사용하고 또 공간에 대한 생각도 天地에 맞추어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불분명하고 이상한 느낌이 들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미 天地와는 다른 쪽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天地의 관점에 따르자면 이미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공간”의 개념이 설 곳이 없게 된다. 우리는 “공간”이라는 단어를 “건축”이라는 단어같이 너무 일상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 단어를 그렇게 쓰면서 “공간”이란 것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울 뿐이다. 건축에서의 공간을 “天”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얼마든지 설계할 수 있지만 그렇게는 하지를 않고 “공간”이라는 것으로만 인식될 수 있는 무엇으로 생각해왔던 것이다. 이것은 문화적 동화과정에서 생기는 개념적 세뇌 말고 다른 것이 아니다. 공간이란 天地에서 地를 떼어내고 또 天에서 공간 아닌 자연적 허공과 인공적 공간을 찢라 내야만 가능한 무엇이다. 그렇게 해야 가능해지는 “공간”이란 것은 동양인의 사고에 없었다.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고가 불가능했다. 건축의 공간은 天에서 떨어질 수 없을 뿐 아니라 반대로 인공적 天과 자연적 天, 그리고 天과 地가 하나로 연결되고 통해지는 하나됨이 본래부터 전제되어 있어야만 했다. 그리고 사실상 그것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이었다.¹⁹⁾

우리가 공간이라고 부르는 것은 본래 하늘과 하나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한 하늘은 다시 땅과 하나되어 있는 것이되 그렇게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됨이 지속되게끔 연결시키는 장치가 바로 “건축”이라는 것이었다. 건축이란 떨어질 수 없는 것을 떨어지게 하는 무엇이 아니라 떨어질 수 없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나 되게 하는 무엇이었다. 그렇게 하나 되게 하면서 떨어짐으로만 가능한 “공간”이라는 개념을 쓸 수가 없었던 것이다.

건축은 天과 地가 만나는 곳에서 그 두 가지를 연결하는 방법으로서만 가능하였다. 하늘과 땅의 만남의 처리방식이 바로 건축이다. 그래서 건축이 天이나 地만의 문제가 아니고 만나서 하나가 되는 “天地”의 문제가 되어야만 했다. 더욱이 “天”도 아닌 “공간”의 문제가 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인간의 생존이 바로 天-地의 만남에서 비롯된 것과 같이 건축도 그 만남의 처리방식이다. 그것은 또한 땅 위의 모든 생명체가 그러한 것과 같다. 건축이란 인간이 天地의 만남의 방식을 인간의 삶에 더 적합하도록 변형시키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건축은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天地”의 문제인 것이다. 건축이란 地의 부분을 갖고 집을 짓되 天의 부분을 머금게 하는 것이다. 인간의 몸도 똑같이 地로서 만들어지되 그 속에 天을 머금는 것이다. 몸의 만져지는 부분은 地의 성분이고 만져지지 않는 공기의 부분인 天이 몸 속에서 地의 성분과 합하여 생명을 유지시킨다. 天地의 합일이 인간의 몸이듯이 건축도 그러하다는 것이다. 집도 地로서 짓되 그 속에 天을 품는다. 집의 地는 땅(地)과 붙어있지 않을 수 없고 집의 天은 하늘(天)과 붙어있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의 몸이 地를 음식으로 먹고 天을 숨쉬어야 살듯이 집도 그러하다는 것이다. 건축의 天地는 자연의 天地와 본래가 하나이며 집이 지어진 후에도 하나이어야만 한다. 이렇게 볼 때 “건축”이란 본래 “天地의 건축”을 의미해야 했던 것이다. 天地의 건축이 아닌 “공간의 건축”이란 것은 본래 없는 것이고 없어야 했던 것이 되어 버린다.

있다는 것이다. 인간과 자연의 문제도 그 관계와 하나됨의 태두리 안에서 인식되고 이해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문제를 다루는 단행본으로는 馮寓, 「天人關係論」, 김갑수 역, (1993, 신지서원)이 있으며 張岱年, 「中國哲學大綱」 上의 제 2부, 제 1편에서 “천인관계론”을 다룬다.

19) 중국철학에서는 天人關係論이 人間 또는 人生論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핵심은 인간의 완성이 天人合一에

우리가 공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天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는 天을 말하고 있으면서 마치 공간은 天이 아니고 天과 무관하게 “인간의 공간”으로 있을 수 있는 것같이 전체하고 작위적으로 관념화된 “공간”으로서 말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동양의 천지관(天地觀)에서 볼 때에는 그러한 공간이란 없으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공간이란 것이 있다면 그것은 天과 같은 것 이어야하고 또 그것은 天地의 논리 속에 들어와야 한다. 그래서 동양의 공간이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무엇이기 전에 天地의 天이어야 하는 것이다. 天地의 天은 그 속에 따로 독립시켜서 수학적으로 관념화하고 그것을 독립적 단위로써 형상화할 수 있는 “공간”이란 것을 갖고 있지 않다. 天을 떠난 공간은 없고 있을 수가 없다. 공간을 다시 天으로 돌려놓지 않으면 공간은 공간일 가능성마저도 없게 된다. 공간이란 본래가 天이기 때문이다. 본래가 天인 것을 갖고 天을 떠나서 공간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공간논의를 天에 귀속시킨다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며 동시에 유일한 논의의 방법인 것이다. 그래서 “공간”이란 없고 “天”만이 있을 뿐이며 “天”도 혼자서 있는 것이 아니고 “天地”로서만 존재한다. 공간 논의는 결국 天地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공간 얘기를 天地로서 하여본 적이 없고 건축이야기도 天地로서 하는 것이 몹시 어색하다.

공간이 天이라면 건축에서의 공간 역시 天의 논리를 따라야 한다. 天의 조화, 天의 성질, 天의 기능을 따르는 것 말고는 공간이 공간일 수 있는 다른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天은 다시 天地의 조화, 성질, 기능을 따라야 했다. 우리는 이렇게 공간과 공간논의를 天地의 문제로 되돌려 놓을 필요가 있다. 인간에게 자신의 생존의 근거가 天地 말고 없듯이 건축의 존재근거도 天地 말고 없다. 그러한 명백한 존재근거로서의 天地를 떠나서 건축과 공간 만들기를 시도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실현시켜본 것이 서구건축이고 또 그 속의 공간이었다. 우리는 공간논의의 고삐를 되돌려서 天地논의로 돌리켜야 한다. 天地논의는 공간논의보다 너무 크고 추상적이고 확정적이지 않다는 인간의 느낌이 공간논의를 天地를 떠나서 할 수 있고 해도 좋은 이유가 되지 못한다. 어차피 인간이란 것도, 또 자연이란 것도 天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본래가 불확정적인 것을 수학적 논리같이 확정적

인 것으로 바꾸어 말하려고 그렇게 말해질 수 있는 부분만을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려는 태도 자체가 또 하나의 치우침이었던 것일 뿐이다. 건축에서 天地를 말한다라는 것은 복고적 전통주의나 비과학적 신비주의가 아니다. 공간이란 본래부터 “天地의 天” 말고 다른 것이 아니었다. 天을 수학적으로 관념화한다고 해서 天이 공간이 되지는 않는다.

天이란 동양철학에서의 심오한 사상만이 아니다. 天이란 나의 몸에서 없어서 안 되는 한 부분이고 내가 사는 집에서 없어서 안 되는 한부분이며, 또 내가 1 분도 숨쉬지 않고 살 수 없는 생존의 조건이다. 반복하여 언급하였듯이 내 몸의 天과 내가 사는 집의 天과 우주의 天은 같은 天이고 하나의 天인 것은 건축의 天에도 똑같이 해당되는 얘기이다. 그리고 그 天은 따로 떨어질 수 있는 天이 아니고 天地의 天이어야만 하는 것도 우리 몸에서나 건축에서나 마찬가지다. 건축에서 “공간”이라고 불렀던 것은 다름 아닌 하늘[天]이며 그것은 하늘-땅[天地]이라는 연합체의 한 부분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새롭게 눈을 떠야만 한다. 그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고 불가피한 일이되 우리가 건축의 공간을 “공간(space)”으로서 생각해온 타성 때문에 그것을 하늘[天]로서 생각하지 못했을 뿐이다. 우리는 공간을 다시 天으로 되돌려 놓고 생각하기를 배워야 한다. 그리고 그 天을 다시 天地의 天으로 되돌려 놓고 인식하기를 배워야 한다. 공간이 天을 떠나서 공간일 수 없듯이 天은 天地를 떠나서 天일 수 없다. 지금까지 건축인에게 타성화된 공간과 공간논의는 天과 地를 분리시키고 다시 天과 공간을 분리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가정할 때의 공간을 말하고 있었다. 그것은 인간의 머리 속에서만 가능한 상상이었지 현실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공간”이란 것은 설 자리가 없어진다.

우리는 서양 근대건축을 자기화 하면서 서구적 공간관도 자연스럽게 자기화 하였다. 그래서 우리의 근대건축에서도 공간을 추구하되 天과는 무관하게 관념화된 내부공간으로서의 공간을 추구하였다. 공간의 규모와 모양, 그리고 그 공간에 대한 인간의 경험 효과를 욕심내었다. 그렇게 인식된 공간은 아름답고 기능적이고 드라마틱(dramatic)한 느낌을 전달할 수는 있어도 어디까지나 天과 天地가 아닌 공간이다. 아테네 여신상이 있는 파르테논의 밀폐된 내부공간은 天이 아

난 공간이다. 天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일종의 공간적 감방(監房)이다. 그 공간은 숨 쉬지 않고 교섭하지 못하게 만든 단절된 공간 덩어리이다. 그러한 “공간”은 기하학적 입방체의 형상을 하고 따로 떨어진 무형적 단위일 수는 있어도 “살아있는 하늘”이 아니다. 숨 쉬지 않고 교섭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그 공간은 죽은 공간이다. 지금 우리들의 건축에서도 “죽은 공간”은 많아도 “살아있는 天”은 거의 없다. 우리 주변의 건축전공인에게 天의 문제는 환기와 채광 정도의 기술적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공간을 天으로 인식하지 못한 결과이다. 天과 공간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바로 “살아있음”과 “죽어있음”이었다. 다르게 표현하면 생명적 민감도의 차이였다. 그리고 그 문제는 곧바로 인간의 삶에서의 생명성의 문제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하늘은 죽어있는 하늘일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늘은 생명성 자체이다. 그것은 땅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건축도 생명성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건축이 그렇다면 공간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다.

서양 근대건축의 전개과정에서 공간의 문제가 전보다 중요한 건축의 실체적 내용으로 인정되게 하는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건축에서 물체적 부분이 갖는 비중에 대하여 비물체적 부분[공간]이 갖는 비중을 새롭게 부각시키고 공간의 투과성, 연속성, 다양성 등의 경험효과를 통하여 과거의 단순입방체적 공간의 틀을 벗어나게 하는 기여를 하였다.²⁰⁾ 그러나 그것은 앞에서 논의한 것과 같은 공간관의 연속선상에서 그 가능성을 확대하는 측면에서의 기여이었지 공간관 자체를 교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공간”을 다시금 “天”이 되게 하는 입장변화는 아니었다. 근대건축에서의 공간도 그 근본개념에 있어서는 서양의 전통적 공간이해 방식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었다. 재료와 기술의 진보에 따른 새로운 공간실현 효과는 분명히 전보다 두드러지지만 그것은 같은 울타리 속에서의 진보이지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의 공간관의 틀을 바꾸는 작업이 아니었다. 서양 근대건축의 전개가

공간의 차원에서 시간의 차원으로의 진화한 것이라고 보는 관점도 쉽게 긍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긍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때의 공간과 시간 역시 관념화된 절대공간과 시간, 그리고 그것의 시각적 드러남의 효과 같은 것을 염두에 둔 주장으로 보인다.²¹⁾ 이러한 주장에 귀를 기울여더라도 우리는 그들이 그러한 주장을 하게끔 하는 공간이해방식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관찰하면서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서구적 공간 논의는 어차피 그동안의 공간인식 경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유일한 공간이해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공간관이 제시되더라도 그것은 유일한 정답이 아니다.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인간은 공간이 무엇인지 모른다. 동양의 공간관을 포함해서 모든 공간관은 공간에 대한 견해실험일 뿐이다. 우리가 피하려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쪽의 견해에만 국한되게 세뇌되는 것이다. 지금의 우리들과 같이 특정 공간관에 한정적으로 매여 있는 상황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5. 空間 - 空氣

“공간”에 대한 논의가 “天地”의 관점으로 회귀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서구적 공간개념의 관념적이고 환원주의적인 성격을 비판하는 입장을 취하는 발상이다. 동양의 건축은 서구적 공간관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동양의 건축은 天地로서 충분하였고 天地의 天과 地로서 집을 지었다. 그렇게 지어진 집에서의 天은 “공간”이 아니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동양의 건축이 공간이 아닌 “天地”를 근본으로 할 수 있게 된 배경을 다시 짚어볼

21) 근대건축에서의 공간논의 중 S. Giedion의 주장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리에 의한 투시효과를 강조하여 근대건축의 한 특성을 공간적 한계를 벗어난 차원적 진화 (Dimensional Development)로 보는 견해를 가리킨다. 그것은 근대화에서 시간의 문제를 표현해보려는 시도로써 나타난 경향을 건축에 대입시킨 견해로서는 이해가 되지만 건축에서의 시간과 공간의 문제는 차원을 달리하는 측면이 있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이연경, 「S.Giedion의 「공간·시간·건축」에 나타난 근대건축의 시간관 해석에 관한 연구」에서 다루었다. 동양의 관점에서 보면 서양건축에서의 공간관은 서양건축사 전체에서 일관되게 유지되는 것으로서 근대건축에 와서 특별히 공간인식 방법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콘크리트와 유리의 사용이 새로운 공간 만들기를 가능케 한 것은 사실이지만 앞에서 논한 것과 같은 작위적 관념화라는 근본적 개념이 바뀌는 것은 아니었다. 더욱이 근대건축에서의 공간 만들기가 시간적 차원으로의 진화라고 규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개입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20) 이 문제에 관하여 두 권의 책을 참조 하였다. Van de Ven, 「건축공간론」 (Space in Architecture), 정진원 외 역 (1987, 기문당) 그리고 「上松佑二」, 「건축공간의 미학」, 이두열 역 (2000, 현대건축사) 그러나 여기서는 근대적 공간에 대하여 자세한 논의를 할 지면의 여유를 갖지 못하므로 더 이상의 자세한 논의를 생략한다.

필요가 있다. 동양인들은 “하늘”과 “땅”을 나뉘어진 둘[二]로 보지 않고 보완적 하나로 볼 수 있게 하는 세계관적 관점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氣의 인 세계관”이다. 동양인에게는 天道 氣이고 地道 氣이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같은 氣의 속성을 갖는 다른 양태가 된다. 天地는 모두 氣이되 天의 氣와 地의 氣는 그 드러나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 氣의 性이 다른 것이다 그 서로 다른 氣性은 서로를 필요로 한다. 합해서 하나가 되려고 한다.²²⁾ 서로 만나려하고 만나서 하나가 되려하고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케 되는 성질이 마치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하나가 되려는 것과 같다. 그래서 天과 地는 天地이어야지 天과 地로 나뉘어진 독립적 개체들일 수 없다. 天만의 공간을 말할 수 없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天은 地를 원하고 地와 하나 되려는 반쪽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나 되려는 성질은 바로 天과 地의 氣의 성질이었던 것이다.

天이 氣이고 地도 氣일 때 天의 한 조각으로서의 공간도 당연히 氣이다. 우리는 동양의 공간을 공간이 아닌 “비공간”이라고 하였고 동양건축에는 “공간”이 없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양의 공간관(空間觀)”이라고 불러볼 수 있는 것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바로 이러한 氣적인 이해방식이었다는 점에서 서양의 공간관과 그 관점이 나누인다. 동양의 공간은 “거리[間²³⁾]”와 “형태[形]”이기 전에 “기운(氣)”이다. 空²⁴⁾은 間이 아니고 氣이다.²⁵⁾ 空의 본래적 성질은 “비어있는 사이

[間]”이고 “수학적 거리[間]”이기 이전에 “생명적 氣”인 것이다. 그것은 天이 氣인 것과 같은 이치이다. 空은 기하학적 관념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운(氣)으로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아무리 하늘의 부분을 대상으로 기하학적 형상화를 하여도 공간의 의미는 그것이 본래 “하늘”이라는 데 있는 것이지 인간의 형상화의 관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공간이 본래 하늘이라는 것은 또다시 그것이 본래 기운(氣)이라는 것이다. 사람이 그것을 숨쉬어야만 사는데 기운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다. 밥은 열흘을 안 먹어도 살지만 공기는 5분을 안 쉬어도 죽는다. 인간의 삶의 기운이 空의 氣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생각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러한 空을 氣로 보지 않고 수학적 거리[間]와 입체적 모습[形]으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空의 본질을 무시하고 그것을 억지로 관념화하여 인간의 작위물화(作爲物化)하려는 이상한 의도가 아니고는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다.

空은 間이기 전에 먼저 氣이기 때문에 공간은 “비어있는 수학적 허공”이 아니고 “가득차있는 유기체적 실체”이다.²⁶⁾ 공간은 기하학적 관념의 문제가 아니고 생명을 유지시키는 실체적 내용물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물체와 같이 딱딱하지가 않을 뿐 그 실체에 있어서는 사물의 실체성과 조금도 차이가 없다. 그래서 공간은 “비어있음”이 아니고 “차있음”이다.²⁷⁾ 그래서 공간은 “없음”이 아니고 “있음”이 된다. 그래서 공간은 “빈 허공”이 아니고 가득 차있는 “기운”인 것이다. 그래서 동양인에게에는 공간이 물체에 비하여 덜 중요하게

22)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하 문헌적 근거는 수없이 많겠지만 가까이에서 예를 들면 “자연과 인간의 본질은 하나의 기일 뿐이다. 기는 허공 가운데 있으며 허공은 기가 아님이 없으므로 하나로 관통하여 둘이 없는 것이다.” 王船山, 「張子正蒙注」 권 1 太和篇 이규성, 생명의 철학, 왕선산에서 재인용 (p. 145)

23) 여기에서의 間(거리)은 앞에서 개체된 다른 기사 “존재-관계”에서의 “사이(間)”와는 다른 의미이다. “사이”는 좀더 추상적인 의미에서의 “관계”를 의미한 것이고 이곳에서의 거리(間)는 하나의 실내공간에서의 이쪽과 저쪽의 “거리”란 뜻으로 사용된 것이다. 같은 “間”을 썼지만 의미는 구별되어야 한다.

24) “空”이라는 단어는 “공간”과 구별하여 “동양적 공간”의 의미를 갖게 하려는 의도로 썼다. 그러나 문장과 문맥의 진행상 “동양적 공간”의 의미에서의 “공간”도 전부 “空”으로 기술하지 못하고 그냥 “공간”으로 쓰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 또 동양과 서양을 구별하지 않고 “일반적인 공간”의 의미로 쓰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독자들이 구별하여 읽어주시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

25) 正蒙(정몽) 太和에서 “虛空卽氣”(허공은 바로 기이다.)라는 글귀가 나온다. 그리고 “太虛無形, 氣之本體”, (형체가 없는

태허가 기의 본체이다.)라는 말도 기록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氣는 본래가 형체가 없는 것으로서 하늘(天)의 기운이 氣에 가장 가까운 것이 된다.

26) 여기서 공간을 “실체”라고 표현했을 때 그 “실체”는 앞에서 회랍사유에서의 “본체(本體)”로서의 의미와는 다르다는 점이 지적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에서는 “본체”의 의미로서도 “실체”라는 말을 썼었기 때문이다. “본체”는 “초월적 실체”, 또는 “진리로서의 실체”라는 의미가 깔려있는 반면 여기서의 “실체”라는 말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적 사실”로서의 “실체”라는 의미가 되어야 한다. 즉 “관념적 실체”가 아닌 “자연적 현상”, 또는 “현상적 사실” 정도로 이해되면 좋을 것이다.

27) 이와 관련된 문헌으로서 예를 들자면, “순수공간은 없다. 공간 안에는 무궁한 힘이 충만되어 있고...” (朱子語類 권 1 理氣), “모든 것이 이인테 어찌 비었다 할 수 있는가 세상에 이보다 충실한 것은 없다” (遺書 권 3, 二程集 1) 등의 예문이 찾아진다. 이규성 전개서에서 재인용 (pp. 37-39)

나 배경적인 것도 아니다. 공간은 생명적 실체로서 가장 소중하게 취급되어야 했던 것이다. 공간은 “남는 빈 곳”이 아니고 “담겨져 있어야만 하는 실체적 내용물”인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하늘(天)의 내용물”이었고 내 몸 속에도 있는 “天”이라는 내용물이었다. 그 모두는 같은 “氣적인 내용물”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순수한 빈 공간”이란 것은 없다. 기하학적 관념으로서의 공간이란 것은 머리속의 생각일 뿐 공간의 실체가 될 수 없었다. 공간은 처음부터 언제까지나 무궁한 힘이 충만되어 있는 “하늘[天]의 세계”이고 “하늘의 문제”일 수 있을 뿐이다.²⁸⁾ 그리고 그것은 “기운의 문제”이어야만 했던 것이다. 공간의 문제를 거리와 형상의 문제로서 취급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하늘과 기운”의 문제로서 이해하는 범주 내에서 가능한 것이고 하늘과 기운의 처리 방식이 존중되는 범주 내에서의 문제가 되어야 했었다.

이러한 생각은 서양적 공간관과 완전히 다른 공간관을 설정케 한다. 그것은 “공간(空間)의 공간”이 아니고 “공기(空氣)의 공간”이 된다. “간격[間]으로서의 공간”이 아니라 “기운[氣]으로서의 공간”이 문제가 된다. 공간(空間)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일상적 습관에서는 공간을 기운의 문제로 취급하는 것이 이상하고 낯설기 때문에 그것이 어색하게 들릴 뿐이다. 실제로 동양의 건축은 “空의 氣”를 다루는 것이 건축적 관심의 핵심을 이룬다. 공간을 조절되 가장 氣적으로 충만한 공간을 만들려는 것이 건축의 목적이었다. “空間”이 아닌 “空氣”²⁹⁾의 성질을 파악하고 그것이 사람의 삶에 가장 유익하게 작용되게 하려는 것이 건축의 핵

심과제이었다. 그래서 氣의 흐름에 민감해야 했고, 氣의 막힘과 통함을 신경 쓰고, 氣의 종류와 기능의 안배에 초점을 맞추어야 했다. 그들에게는 氣가 아닌 수학적 체적(體積, volume) 또는 거리(間, distnace)로서의 공간은 무의미한 것이고 죽어있는 관념일 뿐이다. 살아있는 空의 실체적 기운을 무시하고 空의 거리와 형상을 문제 삼는 것은 핵심과 내용을 놓치고 겉테기와 같은 형식논리를 붙잡는 것과 같은 것이 되어버린다. 공간에서의 간격과 형상을 문제 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틀린 것이 아니지만 기운[氣]의 문제를 도외시한 채 간격과 형상이 전부인 것처럼 바라보는 시각의 무모함이 문제인 것이다. 하늘로서의 공간이란 사람과 만물을 살게 하는 것으로서 죽은 공간은 더 이상 하늘이 아니다. 그래서 죽은 공간, 또는 죽게 하는 공간은 공간이 될 수 없다. 空氣의 문제를 기하학적 입방체의 모양의 문제로 취급한다는 것은 空과 空氣의 실체가 무엇이고 그 효능이 무엇인지를 도외시하고서만 가능한 것이다. 空은 形과 間으로서 의미가 있기 이전에 氣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氣로서의 의미를 놓치고 난 후 붙잡은 間과 形으로서의 의미는 무의미했던 것이다. 空은 氣이고 氣는 생명이었다. 空에서 생명성을 빼버리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생명성이 무시된 공간(空間)은 공간일 수 없는 것이다.

空이 氣라는 것은 물론 天이 氣라는 사실에 연유한다. 天이 氣라는 것은 地가 氣라는 것과 같은 얘기이고 天地가 氣라는 사실은 건축이 氣라는 사실과 통한다. 건축은 天과 地가 합쳐져서 생긴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늘-땅의 氣의 조절이 건축의 관심사이었다. 건축은 땅의 氣와 하늘의 氣의 이상적 합치를 목표로 하였다. 건축은 “天地의 氣의 합일(合一)”을 추구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땅의 입지를 중요시하고 바람과 공기의 흐름을 중요시하였다. 땅의 기운과 하늘의 기운이 만나고 화합(和合)하는 양상을 관찰하고 그것을 집에 적용하고 응용하려 하였다. 건축이란 그 氣의 화합의 양상이 집의 구조 속에 잘 담기고 이상적으로 승화되는 장치를 가리킨다.³⁰⁾ 그래서 동양의 건축은 하늘의 한 조각으로서 떨어진 관념적 공간을 대상으로 하여 공간관을 형성하는 것

28) 여기에 관한 보충적 논의로서 이규성, 「생성의 철학」 왕선산 중에서 1. 왕선산 철학의 근본구조와 역사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pp. 37-39에서 이러한 문제를 논하며 주자와 정이 친들의 중국철학자를 거론하고 있다. 공간에 관한 이러한 생각은 동양철학에서는 너무 보편적인 것이므로 사실상 논거자료를 들먹일 필요도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간개념에 익숙한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보편적 논리가 생소한 것이다.

29) 여기서의 “空氣”는 영어의 “air”와 유사한 개념이 되지만 정확하게는 같은 의미가 아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공기”는 “air”와 같은 의미로 쓰이지만 이 글에서의 “空氣”는 “空”이 “間”이 아닌 “氣”라는 뜻에서 새롭게 쓰는 말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너무 자주 쓰는 “공간(空間)”이라는 말에 대하여 “空氣”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문에서 “空氣”라는 말이 쓰인 것은 야금술에서 “고체 틈새의 공기”와 같은 뜻으로 쓰인 적이 있으나(周禮, 政要, “冶金”) 보편적으로 쓰인 단어는 전혀 아니었다. “空氣”라는 단어의 사용은 “空”을 더 이상 “공간”으로만 보지 말고 “氣”로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담게 하고 싶었던 이유가 깔려있다.

30) 이러한 언급이 바로 風水地理의 개념을 설명하는 말이 된다. 風水의 風은 바람으로서 “하늘”이 되고 水는 물로서 “땅”이 된다. 風水는 곧 하늘-땅이 된다. 風水의 논리는 바로 天地의 논리이었다. 風水는 天地를 우리가 논의해 온 것과 같은 “天地”로 이해한 같은 세계관의 산물이었다.

이 불가능하였다. 동양의 건축은 天地의 氣的 조화과정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空이 天이며 氣가 되지 않고 공간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무의미했던 것이다. 동양의 건축에 “공간(space)”이라는 것이 없었던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이러한 동양적 공간관 내지 천지관(天地觀)은 이상적인 것만이 아니고 현실적인 것이었으며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고 과학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미신이나 신화가 아니다. 메뚜기나 호랑이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자연의 논리를 사람에게도 적용시키려는 가장 단순하고 현실적인 논리이다. “空氣”의 눈으로 볼 때, 반대로 서양의 공간관이 비현실적이고 비과학적인 것이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의 空을 비현실적인 인공관념으로 바꾸어 놓지 않고는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인공적 관념의 효능과 필요성을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다. 그 방향의 성취를 우리는 잘 알고 고마워한다. 그러나 인간은 인공관념의 효능만으로 살지 못한다. 인간은 땅을 밟고 하늘을 숨쉬고 살게 되어있다. 인간의 몸도 땅과 하늘로 만들어져있다. 인간의 건축도 똑같이 땅으로 體를 이루고 하늘로 그 空을 채우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자명하고 당연한 사실을 그대로 건축화하는 것이 건축이어야 하며 그러한 건축의 논리를 벗어나는 공간관은 없다는 것이다. 100층 꼭대기에 사는 인간도 결국은 땅 위에 살고 있고, 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땅과 하늘의 기운으로 살기는 마찬가지이다. 인간의 공간은 결국 땅 위의 공간이고 그것은 땅 위의 하늘이다. 이 때의 하늘은 기하학적 형상이기 이전에 하늘이고 수학적 거리이기 이전에 하늘이다. 사람은 그 하늘과 하늘 아래의 땅으로 해서 생겨났고 또 그것으로 하여서 생명을 유지한다. 인간의 건축이란 그 생명을 더 잘 유지하자고 짓는 것이지 인간의 관념적 놀이욕구를 만족시키자고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건축은 공간의 문제가 아니고 天地의 문제이고 天地의 기운의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공간”이란 “하늘”과 “空氣”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인간의 건축에서 공간의 문제가 하늘-땅의 문제가 된다고 할 때의 하늘-땅이란 것은 하늘과 땅을 구분하고 분리한 후의 어느 한쪽이 아니고 하늘-땅으로 붙어서 하나가 되는 상호관계내지는 역동적 영향관계를 가리킨다. 그 역동적 영향관계란 것은 정확하게 氣

의인 영향관계를 가리킨다. 그 氣的인 영향관계 속에서 건축의 공간이 공간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될 때의 공간이란 것은 독립적 존재가 아니다. 상호영향관계와 그 관계의 변화과정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상황이다. 공간이란 것은 존재도 관념도 아닌 과정적 상황이다. 그리고 그 과정적 상황이란 바로 天地에 편만해 있는 기운의 자기변화과정이고 그래서 공간은 고정된 間이 아니고 흐르는 氣의 문제가 된다. 공간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氣의 문제이었던 것이다. 空間은 바로 空氣이었다. 건축에서의 공간이란 그 空의 氣가 物의 氣와 조화되고 다시 그 조화가 인간의 氣와 생명적으로 화합하게 하는 목적 과 의미에서의 “空氣”를 의미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될 수가 없었다. 공간이란 거리와 형상이기 전에 생명적 충만을 위한 역동적 상호영향관계 속의 기운이었다.

6. 天地 - 建築

인간은 땅 위를 걸어 다닌다. 움직이지 않는 땅을 밟고 하늘 부분에서 이동한다. 순수 기하학적 입방체 공간 속에 살더라도 인간은 결국 바닥을 밟고서만 이동가능하다. 인간의 공간은 기본적으로 지표공간(地表空間)이다. 인간의 삶의 공간은 순수 기하학적 관념공간이 아니고 “땅 위의 공간”이다. 땅을 밟고 이동하며 하늘을 숨쉬고 사는 그러한 공간이다. 우리가 아는 건축에서의 “공간”이라는 단어는 물체적 구조체 속에 비어있는 입체적 부분을 지칭한다. 인간은 그 내부공간에서 날아다니는 나비가 아니다. 인간의 발은 땅에 닿아있어야 하고 머리는 하늘에 닿아있어야 한다. 그래서 인간의 공간은 “공간”이기보다 “자리”이다.³¹⁾ 인간의 공간은 입방체적 단위가 아니라 하늘-땅이 붙어있는 삶의 영역이지 허공의 부분이 아닌 것이다. 자리는 하늘-땅이 붙어있는 사람의

31) “자리”라는 말의 의미는 다른 곳에서 새롭게 정의 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공간”을 “자리”로서 대치시키는 일을 포함해야 한다. 우리가 “공간”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상 “자리”이어야 하고 “자리”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리고 “자리”는 순수관념으로서의 “공간”을 거부한다. 인간의 공간은 어디까지나 자리일 수 있을 뿐 기하학적 관념으로서의 공간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이미 서양에서 “place”라는 개념으로 제기 되었고 우리말에서는 “장소”라는 말로 번역되었다. 여기서는 순수 우리말로서의 “자리”가 더 적합한 개념으로서 제안되게 하려한다. “자리”는 하늘의 부분만을 지칭하지 않고 “하늘-땅”의 한 부분을 같이 지칭하게 한다. 그래서 자리는 공간이 아니다.

거처(居處)인 것이다. 인간은 공간적 입방체에서 살지 않는다. 모든 인간은 하늘-땅의 한 영역인 자리에서만 살 수 있다. 인간의 거처는 기하학적 관념화가 가능한 “공간”이기 전에 “땅 위의 자리” 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공간은 순수 기하학적 입방체가 아니고 위(天)가 있고 아래(地)가 있는 “자리”이다. 그 위와 아래는 모든 곳에서 균질하고 동일하지 않다. 모든 자리에서 그 “자리성(性)”은 다르다. 모든 자리는 하나의 자리로서 유일하며 자기만의 고유성을 갖는다. 공간은 그 개념에 있어서 모든 곳에서 균질하고 순수하며 절대성을 갖는 관념적 성격을 갖지만 인간의 삶의 자리에는 그러한 공간은 없다. 이런 기하학적 공간은 관념적 가정으로만 존재 가능할 뿐 현실적 상황이 아니다. 공간을 자리로 대치하려는 것은 공간을 天地로 대치하려는 것과 같은 의도이다. 자리에는 이미 하늘-땅이 붙어 있기 때문이다. 건축은 “자리만들기” 이지 “공간만들기”가 아닌 것이다.³²⁾

우리의 전통건축에서 하늘과 땅을 같이 건축의 중심적 과제로 하였다든 점에 대하여 우리는 생소하게 느낄 수 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전통건축을 만들어 왔었던 세계인식의 관점에 대하여 생소해져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간”에 대하여 라면 전혀 생소하게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天地”와 “空氣”와 “자리”를 건축적 과제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하는 점이 우리의 건축경험에서 확실해지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동시에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전통건축을 볼 때에도 그러한 시각에서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준다. 우리는 필경 우리의 옛 건축도 “공간”의 눈으로 보고 있을 것이다. 전통건축이 “天地와 空氣와 자리”의 관점에서 이해되고 지어졌는데 우리는 그 관점에서 보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전통건축에 대하여 제한된 이해밖에 갖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자리”란 天地에서 인간

이 거하는 공간적 영역을 가리키며 그 영역은 空의 氣로 채워져 있다는 점에서 “天地, 空氣, 자리”의 개념들은 하나로 통한다. 그 개념들에 따라서 건축을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생소한 일이겠지만 최소한도 그러한 개념들을 떠나서 우리의 전통건축이 이해될 수 없다. 건축을 한다는 것은 “天地 관계”를 건축화 한다는 것이고 “空의 氣”를 가장 충만한 상태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하늘-땅-사람”이 하나로 합해지는 “자리만들기” 말고 다른 것이 아니었다. 땅을 밟고 하늘의 기운을 숨쉬는 인간의 거처를 가장 건강³³⁾하게 만드는 것이 건축의 과제이었다.

전통건축은 “공간의 디자인”이 아니었다. 공간과 형태의 디자인이기 이전에 “天地의 디자인”이고 그것은 “자리”의 디자인이다.³⁴⁾ 공간과 형태 디자인의 관심은 디자인하는 대상물의 형상적 설계에 집중되지만 天地와 자리의 디자인은 디자인의 관심이 천지간(天地間)의 상황에 대한 기(氣)적인 대응방식이 주 관심사이므로 대상물의 형태와 공간에 치우치게 되지 않는다. 우리가 이미 잘 알듯이 전통건축은 형태와 공간에서의 새로운 모양을 만들어 내는 데 상당히 무관심하였다. 자리의 고유성에 따른 기(氣)적인 대응방식의 다양성의 눈으로 보아주지 않고 형태와 공간의 모양으로 보아주면 본질적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동양 건축의 관심은 그 자리에서의 天地간의 氣적 상황을 어떻게 수용하고 대처하는가 하는 방식에 있었다. 인간의 삶의 자리가 가장 바람직한 天地에의 대응체제가 되게 하는 데에 관심이 쏠려있었다. 그래서 건물자체의 설계이전에 입지와 배치가 중요했으며 그것은 모든 장소마다 효과적인 天地수용의 방식이 달라야 했기 때문이다. 모든

32) 우리는 “공간”이라는 말의 동양적 의미를 규정하기 위하여 천지, 공기, 등의 새로운 말을 만들어가며 설명하였었고 여기서 “자리”라는 개념을 새롭게 꺼내게 되었다. 이러한 단어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이지만 거기에는 우리만의 중요한 환경이해의 입장이 깔려있으며 그래서 그 단어들을 새롭게 거론하게 된다. 단어의 사용이 사람에게 주는 세뇌 효과가 엄청나게 큰 만큼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개념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어들의 새로운 의미부여가 불가피하다.

33) 여기서의 “건강”이라는 표현은 “몸이 건강하다”는 의미에서의 건강만이 아니다. 영어에서의 “health”로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 보다 포괄적이면서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건강상태를 포함하는 개념이어야 한다. 보기에 따라서는 “바람직한 인간의 상태”의 뜻을 함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여기에 관해서도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지만 우선 너무 협의적으로 이해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하여 간단히 언급해 둔다.

34) 여기서 “디자인”이라는 말에 대한 간단한 언급이 “필요하다. “디자인”은 이 문맥에서 가장 적절한 표현은 아니다. “디자인”은 서구문화적 “창조”의 뜻을 강하게 내포하는데 비하여 여기서의 의미는 그러한 창조개념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뒤에서 나오는 “창조-생성”의 장에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하고 있다. 여기서는 “디자인” 말고 다른 단어를 쓰기가 어려워 서 그냥 쓰고 있는 정도로 이해되었으면 한다.

장소는 그 땅의 氣의 조건이 다름으로 해서 같을 수가 없었다. 그 다른 조건에 다르게 대응하는 것이 건축의 역할이었다. 그래서 모든 자리마다 “자리의 感”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 지구상의 모든 집터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하늘-땅의 氣의 교감상황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건축적 관심이 순수 기하학적 공간관으로는 채워질 수가 없었던 것이다. 氣의 실체적 다양성을 관념적 균질성으로 대치시킬 수가 없었다.

집을 지을 입지를 찾는 데에 모든 심혈을 기울인 것은 주어진 天地상황에서 적당한 자리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주산(主山), 안산(案山)을 찾고 좌청룡(左靑龍), 우백호(右白虎)를 찾는 것은 天地 기운의 흐름과 그 기운의 취산(聚散)의 상태를 집과 인간의 삶에 적절하게 응용하고자 함이었다. 땅의 기운이 갖는 형국이 나를 감싸주고 하늘 기운의 흐름이 나의 삶에 유리하게 상통(相通)하도록 하고자 함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하늘과 땅의 기운이 서로 만나서 교감하는 상승효과가 나의 삶에 효과적으로 감응(感應)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땅의 기운과 하늘의 기운이 만나고 모이는 그 역동성을 집이 수용코자 함이다. 그것은 적당한 자리 찾기에서만 아니라 찾은 자리에서의 배치계획도 마찬가지로 목적과 방법을 따른다. 그것이 건축에서의 디자인의 내용이고 목적이었다. 그것이 바로 “자리의 디자인”이었다. 좋은 집과 마을의 터는 움직이지 않는 땅의 형국과 움직이는 하늘[바람] 기운이 만나서 교감하는 “氣의 판”이 좋은 것이고 그 판은 건축행위 이전에 天地의 상황에서 결정된다. 건축은 그 天地교감의 판에 끼워 맞추어지는 방식으로 하늘과 땅을 하나로 연결하는 장치이다. 건축은 그 속에 큰 하늘(天)의 한 부분인 작은 하늘(실내공간)을 갖추고 큰 땅(地)의 한 부분인 작은 땅(건물)을 갖추면서 하늘-땅을 연결하고 하늘-땅의 기운을 가장 생동적으로 유지시키고 그 기운이 더 생성되게 하는 장치이었다. 건축은 하늘-땅 기운을 담아내는 “그릇”이고 하늘-땅 기운에 반응하는 역동적 “장치”이었다. 天地기운의 역동성의 이해와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식을 찾는 것이 건축의 디자인이었다. 그것은 “적응”이고 “대응”이고 “합일”의 문제이지 “인공적 창조”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氣적인 조화와 하나됨”의 문제이지 “형상적 심미성과 기능”의 문제가 아니었다. 건물의 형태와 공간의 모습을 그 자체로서 목적인 것처럼 표현효과를 추구한다는 것은

이러한 氣적 조화와 하나됨의 목적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일이 아니었다.

담장은 옆으로 이동하는 바람을 막고 그 안쪽에 적당한 정도의 바람[天]기운의 안정성을 유지시키는 장치이다. 일단 담장에 의해 안정적 “하늘기운[天氣]”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속에 들어있는 건물은 외부에 대하여 충분히 개방적일 수 있다. 그 개방성은 큰 하늘[天]과 작은 하늘[房]이 통하면서 새로운 기운이 흐르되 적당하게 고이고 안정되게 하는 역동성과 안정성의 효과를 필요에 맞게 최대한으로 누리자는 것이다. 비교적 안정적 인 땅의 기운에 대하여 하늘 흐름의 적절한 조절이 바람직한 天地 교감의 상황을 만드는데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한 “교감과 흐름의 하늘”은 어디까지나 하나로 통하는 하늘일 수 있을 뿐 단절된 내부공간의 형상의 문제가 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마당은 땅과 하늘이 직접적으로 만나는 곳이 되 대자연에서의 만남이 아니고 인간의 삶의 자리를 위해 구획된 담장 안에서 만나는 곳이다. 그곳은 땅의 기운이 모여 있고 하늘의 기운이 모여서 서로 하나가 되되 해가 잘 들어서 아늑하고 안정된 天地기운의 교감이 농축되는 곳이 되어야 했다. 그래서 하늘-땅[陰陽]의 교감이 생명적 결실을 가능케 하는 곳이 되게 하는 터를 만들자는 것이고 모든 인간의 삶의 행위가 그 안에서 일어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곳 역시 “외부공간”이 아니다. 거기에도 “공간”은 없다. 특정 상태로 조절된 작은 “하늘-땅(天地)”이 큰 하늘-땅에서 구분되 단절되지 않게 구획되어 있는 상태일 뿐이다.

뒷마루를 거쳐 열려있는 대청마루는 마당에 모인 기운이 실내공간으로 이어지게 하는 과정적 부분이다. 대청은 마당을 향해 열려 있어서 마당의 기운과 하나로 통해 있다. 그러하되 자연의 기운이 인간의 자리에서의 기운으로 전이 되도록 유도되게 하는 곳이다. 방은 대청과의 사이에 있는 다양한 개구부를 통해 대청에 끌어들이는 기운이 방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게 하되 밤에 잠을 자는 곳이므로 개구부를 닫으면 기운의 양상이 가장 안정적일 수 있게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하늘의 공기(空氣)는 실내의 공기(空氣)와 하나로 통(通)할 수 있어야만 한다. 통한다는 것은 서로 교감하고 하나로 흐르게 함으로 살아있게 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다. 마당과 대청과 방으로 이어지는 자리의 연계상황은 기운이 교류

교감되게 하되 두터운 벽에 의하여 안과 밖으로 단절되는 방식을 피하고 하늘 흐름의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변화를 도모하자는 공간적 장치 같은 것이다. 인간이 사는 것은 마당, 대청, 방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로 통하는 하늘 흐름의 “기운”이기 때문이다. 空間을 사는 것이 아니라 空氣를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옛집은 땅의 고정적 기운과 하늘의 움직이는 기운의 조절 및 상승 효과를 노린 장치다. 그것은 공간의 형상의 문제로서 풀어질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하나의 건축을 이해할 때 그 집이 앉아 있는 땅의 氣的 상태, 그 집을 흐르는 하늘의 氣的 상태, 그리고 그 양쪽의 교감상황이 또 다시 인간의 氣적 상태와 교감하는 전체적 양상을 떠나서 이해되지 않는다. 여기에서의 건축은 대상물의 고정적 모습이나 내부공간의 감상의 문제가 아니다. 기운적 상호관계의 역동적 교감의 판을 그 성질에 따라 엮어 내는 문제 이었다. 건축은 형태와 공간의 문제이기 전에 天地의 문제라는 언급은 이러한 뜻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방-마루-퇴-마당-자연의 연속적 연결장치는 “하늘-땅”이라는 두 가지 절대적 근본과 그 사이의 역동적 상호관계를 단계적으로 사람의 생활에 맞게 건축화(建築化)하는 행위이었다. 인체(人體)에 경락(經絡)이 있듯이 집에도 氣가 흐르는 길이 있어서 건물 내외의 공간들이 그 흐름을 따르고 삶의 장소들을 성격에 따라 그 氣의 흐름에 맞추려는 노력이 있어왔다. 기운(氣)도 사람과 같이 들어가는 곳이 있고, 지나가는 곳이 있고, 멈추어 고이는 곳이 있다는 것이다. 氣의 흐름도 입출구(出入口)가 있고 전후좌우(前後左右)가 있고 이롭고(利) 해로움(害)이 있고 농담(濃淡)의 차이가 있다. 그 모든 기운의 성격을 사람의 삶에 맞추어 집을 짓자는 것이다. 이러한 “氣의 건축”은 인간 중심적 공간과 자아표현적 형태추구의 건축이 될 수가 없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天地”의 건축이고 그 사이의 “기감(氣感)”³⁵⁾의 건축이다. 서구적

의미의 “공간”은 이 곳에 없다. 서구적 의미의 “형태”도 이 곳에 없다. 옛 집에도 물론 내부공간이 있고 외부형태도 있다. 그러나 그 공간과 형태는 서구건축 전통에서와 같은 의미의 공간과 형태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빚어 만든 인간의 공간-형태이기 이전에 天地와 인간이 같이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하나의 “氣의 場”이 되려 한다. 건축이란 “氣의 집”이다. 그리고 그 氣는 반드시 두 가지 다른 상대편의 합일적(合一的) 교감의 방식으로만 상승된다. 이러한 상승적 합일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서구적 공간관은 소용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공간의 건축”과 “天地의 건축”은 완전히 다른 갈래길을 가고 있었다. 이 서로 다른 갈래길은 수 천 년 간 동서양의 건축이 역사 전체에 걸쳐서 서로 다른 길을 가게 했다. 공간이란 것은 인간중심적 건축에서 가능하고 필요한 것이었고 그것은 天地의 건축에서는 끼어 들어올 자리가 없었다. 우리는 서구적 공간의 개념으로 동양건축의 天을 설명하려는 것을 포기하여야 한다. 서양 건축에서의 공간은 天地의 天을 담아낼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었다. 똑같이 서양건축에서의 형태는 天地의 地를 담아낼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서양건축은 天地를 건축의 주체가 아닌 배경으로 간주하였으나 동양건축은 天地 자체가 건축이 되게 하려 하였다. 서양건축의 공간과 형태는 독립적이고 고정되어 굳어버린 하나의 물리적 상태를 만들려 하지만, 동양의 天地는 흐르고 만나고 합해서 하나 되는 역동적 생성과정(生成過程)을 그 생명으로 한다. 서구적 공간이란 것은 그 흐르고 변화해야 하는 하늘의 부분을 인위적으로 바꾸어 수학적 관념에 맞게 형상화시킨 것에 가깝다. 동양의 天地의 눈으로 보면 그러한 공간은 살아있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는 공간이 아니었던 것이다.

공간의 건축은 그 규모와 모양을 디자인하려 하지만 天地의 건축은 그 전에 하늘을 디자인하고 땅을 디자인한다. 그 디자인은 하늘과 땅을 인간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되고 싶어 하는 대로 되게 하는 것이다. 인간의 의지와 사고에 따른 “만들기”³⁶⁾가 아니라 하늘과

35) 기감(氣感)이라는 표현도 약간의 설명을 필요로 한다. “氣의 感”이라는 뜻도 되며 “氣적 感應”이라는 의미도 된다. 氣라는 것은 본래 感하고 感應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건축도 氣感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感의 문제를 강조하게 되는 것은 서구적 공간이해 및 건축이해의 방식이 기본적으로 感의 문제에 있어서 취약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점이 서양문화가 갖는 취약점이기도 할 것이다. 感應의 문제에 대한 참고 자료로서 필자의 다음 두 개의 논고를 들 수 있다. “시각과 감응: 동서양 건축에서의 경험의 문제” 「건축역사연구」 (2004. 12), “비례와 기운: 동서양건축에서의 심미성”

「건축역사연구」 (2005. 6)

36) 여기서의 “만들기”는 “생김” 또는 “생성”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쓴 것으로서 이 문제는 뒤에 나오는 “창조-생성”의 장에

땅의 기운의 흐름과 변화에 인간의 건축행위를 맞추어가는 디자인이다. 건물과 공간의 형태를 만드는 개념에서의 디자인이 디자인이라면 天地건축의 디자인은 디자인이 아니다. 건축의 디자인은 “공간적 창조”이기 전에 먼저 “天地에의 순응”이어야 하고 그 “순응”의 범주 안에서 “창조”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건축이란 “자연의 天地”를 “인간의 天地”가 되게끔 끌어들이 서로 통하게 하는 장치이다. “자연의 天地”와 “건축의 天地”, 그리고 “인간의 天地”가 모두 하나로써 통할 수 있어야만 한다. 자연이 天과 地로 되어 있고 인간의 몸이 天과 地로 되어 있음은 알면서 건축도 똑같이 天과 地로 되어져야 함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연, 인간, 건축의 “天과 地”는 “天과 地”가 아닌 “天地”가 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자연, 건축, 인간의 天과 地는 모두 하나의 天地로 통할 수 있을 때에만 天地의 생명적 기운 역시 하나로써 통할 수 있게 된다. 그러한 “생명적 통합”이 건축의 목적이었다. 天地의 건축은 하늘-땅이 서로 같이 生하는 길[道]에 따라서 인간의 집이 “生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天地의 건축은 “生의 건축”이었다.

7. 결론

동양의 눈으로 볼 때 공간이란 개념은 나누일 수 없는 것을 나누어야 하는 환원적 사고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었으며 인간의 자기표현의 수단으로서 의미가 부여된 가정적 관념 같은 것이었다. “동양의 공간관이 어떤 것이었을까?” 하는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우리는 “공간”이라는 관념에 따라 건축을 생각하고 만든다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공간은 공간이기 전에 하늘이어야만 하고, 하늘은 하늘이기 전에 天地이어야만 한다. 그래서 공간은 “天地의 天”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것은 공간이 아닌 건물의 부분이 天地의 地의 부분인 것과 같다. 그래서 건축은 天地의 문제가 되며 그것이 공간과 물질로서 나눌 수 없는 것은 사람의 몸이 물질과 공간으로 나눌 수 없는 것과 같다. “동양의 공간관이 무엇인가?”를 물으면, “공간이라는 관념을 버려라”는 대답으로 돌아온다. 그것은 공간이라는 것을 인간의 관념이라는 감옥에서 해방시켜서 그것이 본래 되어야 하고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다시금 되게 하는

서 자세히 다룬다.

일이다. 하늘은 공간이 아니다. 그것은 흐르는 기운이다. 그것은 間이 아닌 氣이다. 그래서 空間은 空氣이어야 했던 것이다. 공간은 형상의 문제가 되기 전에 기운의 문제가 되어야 했다. 우리가 공간이라고 불러왔던 것은 天地와 空氣의 개념으로 회복됨과 동시에 “자리”의 개념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것은 인간의 삶이 순수 허공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지표공간에서만 이루어지며 그 지표공간은 균질적 공간이 아니라 하늘-땅이 붙어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우리는 동양적 공간관을 설명하기 위해 天地, 空氣, 자리 라는 단어들을 구사하였으나 우리가 정작 이해해야 하는 것은 그러한 단어들의 출처(出處)에 해당하는 동양적 세계관이다. 그것이 서양과는 판이하게 달랐기에 동양의 건축이 다르게 되었고 공간관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서구근대건축을 받아들이면서 “공간”을 얻고 天地를 잃었다. 그러나 우리는 수 천 년간 우리 문화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했었던 天地를 잃었다는 사실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랐다. 잃어버린 天地도 새로 얻은 공간으로 대체될 수 있겠거니 하는 막연하고 소극적인 기대와 망상을 갖고 있었을지 모른다. 진실로 우리는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었는지에 대해 너무 무감각하고 무지(無知)하였다. 天地를 잃고 공간을 얻었다는 것은 우주적 생명을 잃고 추상적 관념을 얻었다는 것과 비슷할지 모른다. 생명을 잃고 얻은 관념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하는 물음은 天地를 잃고 얻은 공간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하는 물음이 된다. 20세기를 거치며 “공간의 건축”은 전 지구적 현상으로 확대되어지고 있다. 우리는 우리 선조들이 남겨준 “天地건축”도 “공간건축”의 관점으로 보아버리고 공간건축으로 바꾸어 이해하였다. 그리고 우리들이 사는 집을 대부분 “공간의 건축”으로 만들고 있다. 우리는 20세기를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공간건축”에서의 형태와 경험을 추구하고 찬미하고 있어서 좋은 것은 아니다. 공간건축적인 추구가 나쁜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다. 단지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공간과 天地의 균형이어야 한다는 점은 포기할 수가 없다. 이미 이러한 방향의 움직임은 시작되었다. 우리는 그 흐름을 보다 주관적으로 문화적 자신감을 갖고 나와 우리의 정신적 실현으로서 추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서양건축의 전통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류의 건축이 사실상 天地에

민감한 건축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天地건축이란 지구상에 어디에서나 인간이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을 뿐 억지로 추구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인간의 건축에서 天地를 회복하는 것은 동양적 건축관을 강조하는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건축에 대한 인간의 생각을 인간의 자기중심적 관념에서 벗어나서 우주자연의 근본에 다시 맞추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인간중심적 관념에 건축을 맞추느라고 잊혀지고 잃어버려진 天地를 다시 회복시키려는 것이다. 건축이란 인간의 의사에 맡겨진 것만이 아니라 天地의 순리(順理)에도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공간이라는 것은 잃어버린 天地를 대치시키는 개념이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간의 개념을 더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문제를 天地의 범주 속에 다시 귀속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건축이 인간과 자연 사이에서 잃어버린 균형을 다시 찾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공간을 다시 잃을지언정 天地를 더 이상 잃어서는 안 된다. 인간의 건축에서 天地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 논의를 출발시킬 때에는 동양적 공간관이 어떠한 것이었을까 하는 관점에서 논의를 시작하였지만 우리가 얻은 것은 동양적 공간관이 아니라 공간관이란 것을 동양에서 찾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공간을 잃어버리고 天地를 다시 회복시켜야 한다는 깨달음이다. 회복된 天地에서의 건축이 건축일 수 있기 때문이고 天地 사이에서 天地와 합하는 건축이 건강한 건축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궁극적으로 건축에서 원하는 것은 공간의 감동이기 전에 天地의 생명성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A. Blake, 「A Seminar on Time」(1980, Laymont Communication)
2. 움베르토 에코 外. 「시간박물관」 김석희 역, 2000, 푸른숲, (원제 : The Story of Time)
3. 김성우, “동양건축에서의 집과 사람”, 「공간」 1986. 6,
4. 김성우, “동양건축에서의 건축”, 「꾸밈」 1986. 10
5. 張法, 「동양과 서양, 그리고 미학」, 유중하 外. 역, (1999, 푸른숲)
6. B. 뢰셀. 「서양철학사」 상 고대 편
7. 上松佑二, 「建築空間論」, (1986, 早稲田大學出版部)
8. 김성우, “동서양건축에서의 형태의 의미” 「건축역사연구」 (2003.12)
9. 김성우, “동서양건축에서의 건축의 의미” 「동양예술」 (2001.5)
10. 馮寅, 「天人關係論」, 김갑수 역, (1993, 신지서원)
11. 張岱年, 「中國哲學大綱」 上の 제 2부, 제 1편에서 “천인관계론”
12. Van de Ven, 「건축공간론」 (Space in Architecture), 정진원 외 역 (1987, 기문당)
13. 「건축공간의 미학」, 이두열 역 (2000, 현대건축사)
14. 이연경, 「S.Giedion의 공간 시간 건축에 나타난 근대건축의 시간관 해석에 관한 연구」
15. 王船山, 「張子正蒙注」 권 1 太和篇 이규성, 생성의 철학
16. 朱子語類 권 1 理氣
17. 遺書 권 3, 二程集 1
18. “시각과 감응; 동서양 건축에서의 경험의 문제” 「건축역사연구」 (2004. 12),
19. “비례와 기운; 동서양건축에서의 심미성” 「건축역사연구」 (2005. 6)

Space(空間) and Sky-Earth(天地)

- View of Space in the Architectures of the East and the West -

Kim, Sung-woo

(Yonsei University, Department of Architecture)

Abstract

We are so used to the concept of the term "space" that we do not question its conceptual validity. However, this paper argues that the notion of space prevailing all over the world, is not a universal concept that can be applicable to all architectures of the world, but is a particular concept that is generated from the Western way of thinking. This paper aims to identify the conceptual structure of the idea of space as it is originated in the tradition of the West, and, as an alternative view of space, tries to identify the nature of the view of space perceived in the tradition of the Eastern architecture. Comparison of the two views, that of the East and the West, and their meaning in the future of architecture, is another task to discuss in this paper. To be able to clarify the meaning of space in East Asian tradition, a set of new perspective of understanding of space was invited. They are ;

1. sky-earth(天地); insisting that the notion of space should be replaced within the context of sky, which is one half of sky-earth totality
2. energy of the air (空氣) ; space is not empty part inside of a building, but is a dynamic condition of air that is a part of the sky which always exist in form of energy
3. place(자리); instead of space, which, basically, is a man-made concept, idea of place is necessary, which include not only space but also earth

Such concept of space which is different from the notion of space of the West, is meaningful not only to identify the idea of space in the East, but also to be able to contribute for more dynamic, varied, and balanced understanding of space.

Keywords : space, East and the West, architecture, theory of architecture, sky-earth
